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

교육부패 인식유형 연구

- Q방법론을 활용하여 촌지사례를 중심으로 -

2015년 0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류 진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부패행위의 인식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패 가운데 촌지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일반부패와 교육부패, 회색부패에 대한 선행연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입장에서 개인의 가치관을 판단기준으로 할 수 있는 Q샘플을 설계하였다. Q샘플의 문항내용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촌지에 관한 백서와 지침자료, 사례집, 내부 교육 자료들을 근거로 구성하였고 구체적 액수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가이드라인과 기사자료, 인터뷰 등에서 추출하였다. 연구목적인 회색부패에 대한 인식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응답자들에게 개인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교육부패에 대한 34개의 Q설문을 분류하게 하였고, 인식유형에 따른 부패 수용정도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Q설문 분류 후, 설문에 포함된 8개의 구체적 촌지행위에 대해 부패행위인지 아닌지를 다시 구분케 하였다. 그 결과 부패를 보는 5 개의 인식유형을 도출하였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부패를 상이하게 판단하며, 부패수용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절한 인식유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P샘플(응답자 구성)은 학교 선생님, 학부모, 대학생, 일반직장인으로 구성하고 내부자와 외부자, 미혼인 경우와 기혼인 경우를 최대한 고려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또한 도출된 인식유형이 촌지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 연구 설계 전, 그리고 설문 후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교육부패 가운데 촌지에 초점을 맞춘 부패행위의 인식유형은 총 5개로 분류되었다. 제 1유형은 '사회비판 외부형'으로, 이 유형은 부패를 바라보는 가장 전형적인 입장에서 부패를 사회의 문제로 이해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제 2유형은 '사회비판 내부형' 이다. 이 입장은 제 1유형과 기본적 입장은 유사하지만 소액의 촌지 전달이나 사소한 부패행위는 눈감아주는 경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제

3유형은 ‘엄격한 윤리주의’ 관점으로, 부패를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서 바라보고 부패에 대해 매우 엄격한 판단기준을 가진다. 제 4유형은 ‘엄격한 법치주의’ 관점이다. 이 유형은 엄격하게 부패를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제 3유형과 동일하지만, 부패를 인간의 타락한 행위라 규정하는 유형 3과 달리, 강력한 법적 제재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 5유형은 ‘양심적 현실주의’ 관점이다. 이 유형은 현실적으로 촌지 부패가 발생하는 교육일선의 상황을 비교적 관대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그러한 부패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에 대한 인식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부패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융통성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법의 문제, 현실적 문제로 파악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둘째, 실제 부패 행태에 대한 흑색, 회색, 백색부패 판단은 부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동일한 행동이 부패로 인식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아닌 행동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익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닐수록, 금액이 적을수록, 이해관계가 없을수록, 현금이 아닌 선물일수록 부패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패에 대한 판단은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여전히 내부자냐 외부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는 점이다. 일반 부패에 대한 인식 유형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실제 부패사례를 판단할 때는 내부자냐 외부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여전히 행위자의 소속이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넷째, 회색부패의 성격을 띠면 실제 부패행위는 다양하게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설계 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부패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다양한 부패행위에 대해 당국의 혼선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육부패에서 촌지는 대한민국 학부모의 교육열과 인사나 예의문화, 그리고 제도가 맞물려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유동하는 특이한 사례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방법론상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인식 유형 분류와 부패에 대한 판단을 연구하면서 교육수준이나 소득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과의 연관성에 대해 양적연구에 상응하는 정밀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인식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Q연구방법론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 유형 1과 유형 2에서 각각 외부자와 내부자의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자' 나 '내부자' 로 명명하지 않고 '외부관점' 과 '내부관점' 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향후 교육분야 회색부패에 대해서 보다 많은 데이터의 수집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회색부패, 부패수용, 관행, 부패인식, Q방법론, 인식유형
학 번 : 2012-21986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 2

제2장 이론적 논의 ····· 4
제1절 부패 일반 ····· 4
1. 부패의 개념 ····· 4
2. 부패발생의 원인 ····· 11
3. 부패의 측정 ····· 14
1) 부패인지 지수 ····· 15
2) 청렴지수 조사 ····· 16
3) 반부패지수 조사 ····· 17
4. 부패를 바라보는 관점 ····· 18
제2절 회색부패 ····· 21
제3절 교육부패 ····· 23
1. 교육부패에 관한 연구 ····· 23
2. 언론을 통해 나타난 교육기관별 부패의 유형 ····· 25
3. 교육부패 중 촌지가 발생하는 유인구조 ····· 35

제3장 연구 설계 및 방법 ····· 40
제1절 연구 방법 ····· 40

제2절 연구 설계 ····· 43
1. Q 진술문의 설계 ····· 43
2. P 샘플의 선정 ····· 47
3. Q 분류 및 분석 ····· 49

제4장 분석결과 및 해석 ····· 51
제1절 유형분석 ····· 51
제2절 결과해석 ····· 56
1. 유형1 : '사회비판 외부형' 관점 ····· 56
2. 유형2 : '사회비판 내부형' 관점 ····· 61
3. 유형3 : '엄격한 윤리주의' 관점 ····· 67
4. 유형4 : '엄격한 법치주의' 관점 ····· 73
5. 유형5 : '양심적 현실주의' 관점 ····· 79
제3절 각 유형 별 종합 ····· 85

제5장 결론 ····· 88

참 고 문 헌 ····· 93
Abstract ····· 99

표 목 차

<표 1> 부패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 9
<표 2> 한국적 현실의 부패원인 ····· 12
<표 3> 부패의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 14
<표 4> 교육 부패 유형의 정리 ····· 24
<표 5> 교육기관별 부패의 유형 ····· 26
<표 6> 촌지부패 발생에 관한 분석틀 ····· 37
<표 7> Q 연구방법론의 절차 ····· 42
<표 8> Q 진술문 작성을 위한 프레임 ····· 43
<표 9> Q 진술문 ····· 44
<표 10> 부패행태에 관한 설문 ····· 46
<표 11> P 샘플의 구성표 ····· 48
<표 12> P샘플의 사회 경제적 특성 ····· 49
<표 13> 요인분석표 ····· 51
<표 14> 요인 간 상관관계 ····· 53
<표 15> 진술문의 요인가 ····· 54
<표 16> 유형 1이 동의하는 대표 문항 ····· 57
<표 17> 유형 1이 비동의하는 대표 문항 ····· 57
<표 18> 사회비판 외부관점 유형의 부패 분류 ····· 59
<표 19> 유형 2가 동의하는 대표 문항 ····· 61
<표 20> 유형 2가 비동의하는 대표 문항 ····· 62
<표 21> 사회비판 내부관점의 부패 분류 ····· 64
<표 22> 유형 3이 동의하는 대표 문항 ····· 67
<표 23> 유형 3이 비동의하는 대표 문항 ····· 68
<표 24> 엄격한 윤리주의 관점 유형의 부패 분류 ····· 69
<표 25> 유형 4가 동의하는 대표 문항 ····· 73
<표 26> 유형 4가 비동의하는 대표 문항 ····· 74
<표 27> 엄격한 법치주의관점 유형의 부패 분류 ····· 75
<표 28> 유형 4가 동의하는 대표 문항 ····· 79
<표 29> 유형 5가 비동의하는 대표 문항 ····· 80
<표 30> 양심적 현실주의관점 유형의 부패 분류 ····· 81
<표 31> 추출된 인식유형 종합 ····· 86

그 림 목 차

<그림 1>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2014년 부패인식 지도 ····· 16
<그림 2> Q 분류표 ····· 49
<그림 3> 유형 1의 Q 분류표 ····· 56
<그림 4> 사회비판 외부관점 ····· 60
<그림 5> 유형 2의 Q 분류표 ····· 61
<그림 6> 사회비판 내부관점 ····· 66
<그림 7> 유형 3의 Q 분류표 ····· 67
<그림 8> 엄격한 윤리주의 관점 ····· 72
<그림 9> 유형 4의 Q 분류표 ····· 73
<그림 10> 엄격한 법치주의 관점 ····· 78
<그림 11> 유형 5의 Q 분류표 ····· 79
<그림 12> 양심적 현실주의 관점 ····· 84
<그림 13> 회색부패에 대한 수용도 ····· 87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부패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언명이 있다. 그만큼 부패는 인간이 집단 사회를 구성하고 공동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의 주된 이슈이다.

부패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들이 부가되면서 부패개념이나 사람들이 부패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Peters&Welch,1978).

이와 같은 부패에 대한 인식의 다양함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패에 관한 인식 연구가 바로 부패를 흑색, 회색, 백색 부패로 이해하는 관점이다(Heidenheimer, 1989). 즉 특정행위를 두고 심각한 부패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이 시간과 공간을 달라짐에 따라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애매한 부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과거에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암묵적으로 용인되었지만, 최근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공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위장전입의 문제점과 비도덕성이 지적되면서 이러한 행위가 부패한 행위로 인식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1]. 이와 같이 애매한 부패의 사례들은 내부자의 관점에서는 부패행위라기 보다는 서로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관행일 뿐인데, 외부에서 보거나 언론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질 경우 심각한 부정행위나 부패행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

1)출처: KBS뉴스(검색일: 14.12.4: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78346)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애매모호한 부패 즉 회색부패에 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회색부패가 전제하는 것은 부패의 개념은 기존의 정해진 무엇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인식 규정되는 상향적 개념(bottom-up)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조건 하의 인간의 인식유형을 탐구하는 Q 연구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회색부패와 관련하여 이론 연구나 설문을 통한 부패 유형을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회색부패에 대해 Q방법론을 활용하여 인식유형을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회색 부패 내지는 애매한 부패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촌지(寸志, 따뜻한 마음)라고 일컬어지지만 부패행위로 처벌 받고 있는 교육부패 촌지현상에 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회색부패에 대한 인식유형을 Q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촌지'현상에 주목하여 부패현상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촌지(寸志)'는 그 언어 자체로만 보면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는 뜻으로 일문한자에서 유래된 말이다[2]. 촌지는 긍정적으로 보면 고마움의 뜻을 담은 작은 선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금전적 뇌물을 미화하기 위한 단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패행위의 양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연구대상이다.

또한 촌지 행위는 오래 전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부패행위로 문제되고 있으면서도 근절되기 어려운 부패의 문제이다. 동시에 완전히 잘못된 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실제로 현재 교육부나

2) 출처 : 위키백과(검색일:14.12.5. ; 검색어 : 촌지)

교육청 가이드라인은 학부모로부터 식사접대는 3만 원 이하, 현금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나, 선물을 3만원 이내로 받는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서울교육청,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색부패에 관한 인식 유형을 살피기 위해 촌지수수행위를 중심으로 연구의 대상을 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활용하게 되는 Q연구 방법론은 Q샘플이라는 동의와 비동의의 서열로 구성된 설문을 개발하여, 선정된 설문대상(P샘플)에게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때 설문의 범위가 결정되게 되는데 촌지 행위와 관련된 내부자로부터 외부자로 4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즉, 교사, 학부모, 미혼/직장인, 미혼/학생의 경우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Q설문과 동시에 분석이후 인터뷰를 시행하여 논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부패 일반

1. 부패의 개념

부패의 개념은 일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부패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는 이유는 부패가 정치적,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 및 정의되기 때문이다(Peters&Welch,1978).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학자들이 부패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Heidenheimer(1989)에 따르면 부패는 공직중심 정의, 시장중심 정의, 공익중심 정의, 여론중심 정의, 사회자본중심 정의 등의 범주로 나뉘어 논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직중심 정의(public-office-centered definition)의 경우, Bayley (1966)는 부패를 뇌물수수 행위 등의 부당한 행위를 통하여 공직자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Mcmullan(1961)은 공무원이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 수행에 있어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가 부패 행위임을 지적한 바 있다. Nye (1967)는 공식적 임무에서 벗어나 규율 위반 및 개인적인 영향력 행사를 통해 개인의 신분상 또는 금전적 이익을 획득했을 경우를 부패행위라 보았다.

김해동(1992)의 경우, 관료들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 또는 그가 원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행위를 부패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윤태범(1993)은 관료가 자신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통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관료 부패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석홍(1996)은 부패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취하려

하는 행동이며 공무원 행동규범의 하나인 청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보고 있다. 이영균(1997)은 관료 부패란 관료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인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공공 역할에 대한 공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이며, 여기에는 공공재의 남용, 권위의 오용, 집단 간 거래, 공익의 희생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고 본다. 또한 전수일(1996)은 공직자가 사리사욕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및 의무불이행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규범적 의무를 일탈하는 경우를 통칭하여 부패라 규정하고 있다. 김택(1997)은 법을 집행하는 관료들이 법규를 남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재화가치를 획득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관료 부패라 보고 있다. 한태천(1998)은 관료 부패를 관료가 업무나 국민을 대상으로 자신 및 자신과 관련된 사람의 금전, 지위, 가치나 기타보상 등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보았다. 그래서 규범 또는 재량권으로부터의 일탈, 공권력 남용, 영향력 행사 또는 보상제공 유도 행위, 의무불이행 또는 부당행위, 공익을 저버리는 행위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용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병대(2000)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즉 청렴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부패 행위로 보았다. 그리고 김상식(2005)은 부패 개념이 공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익의 한계를 뛰어 넘는 공직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중심 정의(market-office-centered definition)의 경우, Leff (1964)에 따르면 부패는 행정부의 경제정책 입안 및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이다. Klaveren(1957)은 공직자가 공직을 사업으로 보고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를 부패로 정의하고 있다. Tilman(1968)은 수요와 공급 간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현대관료제의 이상적인 중앙집권적 할당기구가 파괴되기 때문에 관료 부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부패라는 거래에 있어서 권력의 주된 역할은 부패를 권력관계 또는 관료제적 지위의 산물로 삼는다는 것이다. 진

종순(2005)은 시민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정치인 및 관료의 불법적 지대추구행위(illegal rent-seeking behavior by administrators)를 부패로 정의한다. 지대추구행위는 기업가가 금전이나 개인적인 연계를 이용하여 특혜를 받고자할 때 나타나며, 지대추구행위가 합법적(로비)인지 불법적(뇌물)인지는 사회적 여건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다. 즉 일반시민의 부패에 대한 정서 및 인식이 사회 내 부패 행위의 기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최병선(1996)은 규제에 의한 기본권과 재산권의 재획정·재배분 과정에서 경제적 지대가 창출되고, 지대추구적 행위가 유발된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부정부패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 제도, 정책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규제가 부정부패의 원천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Alam(1990)은 정치인과 관료에게는 지대추구 기회를 의도적으로 조장하여 그 과정에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정부서비스나 자원의 공급에 관련된 규제를 변경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조장하고, 규제의 자의적 행사가 가능한 재량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또한, Scott(1969)는 규제기준의 모호성과 불투명성은 불확실성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조장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Kruger and Duncan(1993)도 부패 확률은 규제체계가 복잡할수록 높아진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관료의 재량권을 확대할 경우 부정부패를 초래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이다.

공익중심적 정의(public-interest-centered definition)에서 Friedrich(1966)는 부패를 어떤 일을 맡고 있는 권력자가 불법적으로 금전이나 다른 보상을 받고 보상을 제공한 자에게 유리하게 일처리를 해줌으로써 공익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Rogow & Lasswell(1963) 또한 특수이익을 위해 공동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부패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최진욱(2005)도 부패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위임받은 공적 권한과 권력을 오남용 하는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살피건대, 공직중심의 개념은 행위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시장중심의 개념은 과정이나 원인, 공익중심 개념은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김상식, 2005).

여론중심 정의(public-opinion-centered definition)의 핵심은 국민들의 의식이다. Gibbons (1989)는 국민들의 의식을 부패행위의 판단 근거로 삼는다. 즉, 부패의 판단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다고 보는 견해 또는 인식이라고 보았다. 한편 권해수(2003)은 언론자유가 활발한 나라는 국가의 부패 통제가 활발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론의 분위기는 여론생성의 과정을 누가 주도하는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왜곡의 소지와 은폐 등의 부정적 요소들을 표출할 우려가 있다.

사회자본중심 정의(social capital-centered definition)에서의 핵심은 부패가 사회자본을 헤친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부패행위는 사회의 신뢰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불신과 조직원간의 네트워크를 붕괴시키는 부정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패문제가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를 신뢰적자의 문제를 지적한 연구 또한 존재한다(OECD, 1996).

한편, 투명성 및 정부신뢰[3]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의 상당부분은 시민사회와의 상호견제와 균형 작용이 없다보니, 내부적인 자정능력이 상실되어 부패가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부패방지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동시에 국가 간 관계에서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권해수(2003)는 시민사회의 수평적인 참여가 정부신뢰의 핵심관건이라 지적 하였고, 윤상오(2003)의 경우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가 부패 근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

3) 정부신뢰의 정의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다채롭다. Mayer, Shoorman(1995)은 정부신뢰는 정부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을 수도 있음을 수용하려는 의지라고 보았다. 오경민.박흥식(2002)은 정부에 대한 윤리적 신뢰는 정부가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한가의 도덕적 태도 또는 의도로 보았다. Easton(1965)은 정부신뢰의 대상을 정치공동체, 정권, 공직자 등으로 보았고, Miller and Listhaug (1990)는 정부신뢰의 대상을 정부체제에 대한 평가, 확산적 지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신뢰도가 높은 시민단체와 민간부문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정부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 Kasse(1999)는 특히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경우에 비합법적인 정치참여가 일어남을 지적하고, 그 결과 정부제도나 국가권력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국민 간에 정보전달도 어렵고,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았다. 신뢰성의 위기는 정부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힘들고, 계획된 비용 외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백완기(1997)는 한국사회에서 부패를 유발하는 것은 사회문화임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특징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는 정의 문화, 권력지상의 문화, 특수 관계를 강조하는 문화,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화, 결과지상주의 문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전수일(1999) 또한 부패를 문화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는 부패를 사회구조의 불가피한 문화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부패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부패는 확정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부패는 사회문화적 역사,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제3세계에서 용인되는 문화가 서양사회에서는 부패라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부패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가치관과 정의관념, 부패인식, 개인경험에 따라 부패는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패는 확정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불확정적 개념이며, 닫힌 개념이라기 보다는 열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패를 열린 개념이라는 고려하에 다양한 부패인식을 파악함으로써, 부패 연구 발전에 이론적 기여와 나아가 한국 사회의 부패인식에 대한 현재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표 1> 부패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공직 중심 정의	Bayley (1966)	뇌물수수 행위와 같은 부당한 배려에 의하여 공직자가 그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유인된 경우
	Mcmullan (1961)	공무원이 부당한 이유로 합법적인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수행함으로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Nye (1967)	개인관련 금전이나 신분상 이익 때문에 공식적인 공적 임무를 일탈하거나 규율을 위반하여 개인관련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김해동 (1992)	관료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한을 자기 또는 그가 원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행위
	윤태범 (1993)	관료가 자신의 직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오석홍 (1996)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기도하는 행동이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의 하나인 청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동
	이영균 (1997)	관료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에 있어 사적인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공공역할에 대한 공식적인 의무 벗어나는 모든 행위
	전수일 (1997)	사리사욕을 위하여 직 · 간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및 의무불이행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규범적 의무를 일탈하는 경우를 통칭하는 개념
	김 택 (1997)	법을 집행하는 관료들이 법규를 남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화가치를 획득하거나 수수하는 형태
	한태천 (1998)	규범이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공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보상제공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당행위, 공익을 저버리는 행위를 설명하는 총체적인 용어
	최병대 (2000)	직무수행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즉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김상식 (2005)	공직중심의 부패개념이 공익의 한계를 뛰어 넘는 공직자의 일탈행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
시장 중심 정의	Leff (1964)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
	Klaveren (1957)	공직자가 공직을 사업으로 간주하고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
	Tilman (1968)	수요와 공급 간의 심각한 불균형 앞에서 현대관료제의 이상적인 중앙집권적 할당기구가 파괴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진종순 (2005)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치인과 관료의 불법적인 지대추구행위
	최병선 (1996)	비현실적인 규제는 부정부패의 온상이며,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 제도, 정책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규제가 부정부패의 원천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함
	Alam (1990)	정치인과 관료가 지대추구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그 과정에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Scott (1969)	규제기준의 모호성과 불투명성이 불확실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부패발생
	Kruger & Duncan (1993)	규제체계가 복잡할수록 부패가능성이 커짐
공익 중심 정의	Friedrich (1966)	권력자가 불법적으로 금전이나 다른 보상을 받고 보상을 제공한 자에게 유리하게 일처리를 해줌으로써 공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
	Rogow & Lasswell (1963)	특수이익을 위해 공동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
	최진욱 (2005)	위임받은 공적인 권력과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오 · 남용하는 행위
여론 중심 정의	Gibbons (1989)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다고 보는 견해 또는 인식 그 자체가 부패의 판단기준이 됨

	권해수 (2003)	언론자유가 활발한 나라는 국가의 부패에 대한 통제가 왕성해서 부패지수가 낮음

2. 부패발생의 원인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견해는 연구자의 시각과 방향에 따라 다양하다. 경제적 합리적 인간이라는 가정하에 발전된 기대비용 모델에서는 부패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대비용이 높을수록 부패가 감소한다고 본다. 즉 부패의 적발 가능성이 높을수록, 적발된 부패행동이 처벌될 확률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처벌의 강도가 높을수록 기대비용이 높아져 부패가 감소한다는 이론이다.

한편, 주인-대리인 모델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부패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커질수록 감소한다고 본다. 즉, 대리인이 고객에 대해 독점적 권한이 클수록, 그리고 대리인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지닐수록, 이에 따른 대리인의 책임이 작을수록, 그리고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불투명할수록 부패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Argandona(2001)는 기업부패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수뢰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관리자 또는 종업원들이 기업이익을 위해 뇌물제공, 금품강요 등을 행할 때 발생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구매담당 관리자가 공급자로부터 커미션을 받거나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호감에 따라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부패는 관리자 또는 종업원들이 조직의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판매원이 회사를 위한 계약을 성공시키기 위해 구매자에게 부당한 커미션을 제공한 후에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패는 경제적 유인이 클 때, 법률적 제재가 작을 때, 집단적 정의감의 수준이 낮을 때 부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Kaufmann(1997)은 부패의 발생 원인을 법치주의와 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제도적 취약성, 시민의 자유, 행정수준, 경제정책 및 국가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Knack(2000)은 부패가 한 국가의 경제발전단계, 정치적 민주화, 여성의 경제·정치활동 참여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부패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Werlin(1972)과 Scott(1972)는 부패발생의 원인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적절히 실행되지 않는 구조적 배경에서 공직자들이 비공식적인 권한과 재량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한편 김태영 외(2006)는 한국 부패의 원인에 관하여 개인적, 관계 구조적, 환경적, 의사결정 구조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한국 부패의 다양한 원인들을 지적한 바 있다.

<표 2> 한국적 현실의 부패원인

부패원인	구체적 원인
개인적 요인	관련자들의 개인적 도덕 및 윤리수준
	관련자들의 연고·온정주의적 성향
	관련자들의 직업윤리
의사결정·구조적 요인	의사결정과정의 공개성·투명성·재량성·독점성
	의사결정 문화 및 관례
	업무의 성격
	조직의 내부감사제도
관계구조적 요인	제3자의 피청탁자와 연고관계
	조직 내 권력구조
	조직간 권력구조
환경적 요인	연고·온정주의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부배방지 법·제도 시스템

*김태영 외(2006), 한국의 연고·온정주의 부패의 특징에 관한 연구 재정리

하태권 외(1999)는 한국사회의 공직부패 원인으로 정치적·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분류한다. 정치적 환경에는 권력의 집중

과 정치자금을 지적하고 경제적 환경에는 관주도 경제, 관치금융, 경제활동의 낮은 투명성, 비자금 관행을 지적하였다.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는 부패문화의 유발요인은 권력지상주의, 연고관계중시주의, 정의적 인간관계중시주의, 강한 의식주의적 성향, 한턱내라는 사고방식 등으로 분류하여 한국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연고・온정주의형 부패는 특히 부패에 대한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부패연결고리가 지속 및 확대되고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관련자들 간의 연고관계로 인해 서로가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는 경향이 한국사회의 특별히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러하기 때문에 부패 적발이 어렵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수일(1996) 또한 부패의 원인을 정치적 차원, 행정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에서 분석하고 있다. 김성호(2003)는 부패발생의 원인을 정치・행정적 원인, 사회・문화적 원인, 경제적 원인, 개인적 원인 등 4개의 범주로, 조은경(2001)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측면, 조직측면, 문화측면, 환경측면 등으로 보고 있다. 박중훈(1999)은 부패 원인을 환경적 요인, 행정 내부적 원인, 개인적 요인, 부패통제시스템 등으로 보고 있다.

부패발생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은 공무원 개인의 도덕성의 정도에 따라 부패가 억제 또는 유발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공무원의 인격과 지대추구에 대한 욕망이 부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도적 요인은 비현실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업무처리과정의 불투명성, 과도한 준수부담과 특혜부여, 허술한 법이나 제도 등이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종합될 수 있겠다. 환경적 요인은 연고온정주의, 답례문화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전통은 법과 제도 및 절차보다는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연고관계 및 의리의식, 가족의식 등을 중시함으로서 행정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경향이 있어 부패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요인들은 부패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및 절차를 무력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 부패의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학자	부패유발요소의 구분
김해동(1991)	인적요인, 문화적 요소, 체제구조적 요인
유종해(1992)	개인적 측면, 조직적 측면, 환경적 측면
하태권(1993)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 문화적 환경
김해동・윤태범(1994)	정치・행정 체제적 요소, 제도적・구조적 요소, 사회적 ・문화적 요소
전수일(1996)	정치적 요소, 행정적 요소, 사회문화적 요소
김영종(1998)	맥락적 요소, 구조적 요소, 사회문화적 요소, 통제 관리적 요소, 기타(정경유착 등)
김명수(1999)	정치행정요소, 경제요소, 사회문화 심리적 요소

*김한창(2009) 재인용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부패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행동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개인의 행동을 촉발 시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의 특성, 제도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에서의 부패발생 원인을 개인적 측면(개인일탈), 관계구조적측면(학연지연혈연), 제도적 측면(관행, 허술한 규정 등)을 중심으로 종합하였다. 이에 대한 설문문항을 통해 사람들의 부패에 대한 생각과 그룹별 차이를 살펴보고, 부패인식의 유형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분야 부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시사 하고자 한다..

3. 부패의 측정

사실 부패는 범죄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정확히 부패수준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민원인, 기업인,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면접조사에 의해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부패관련 인식

도 조사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청렴위원회의 '청렴지수', 서울특별시의 '반부패지수'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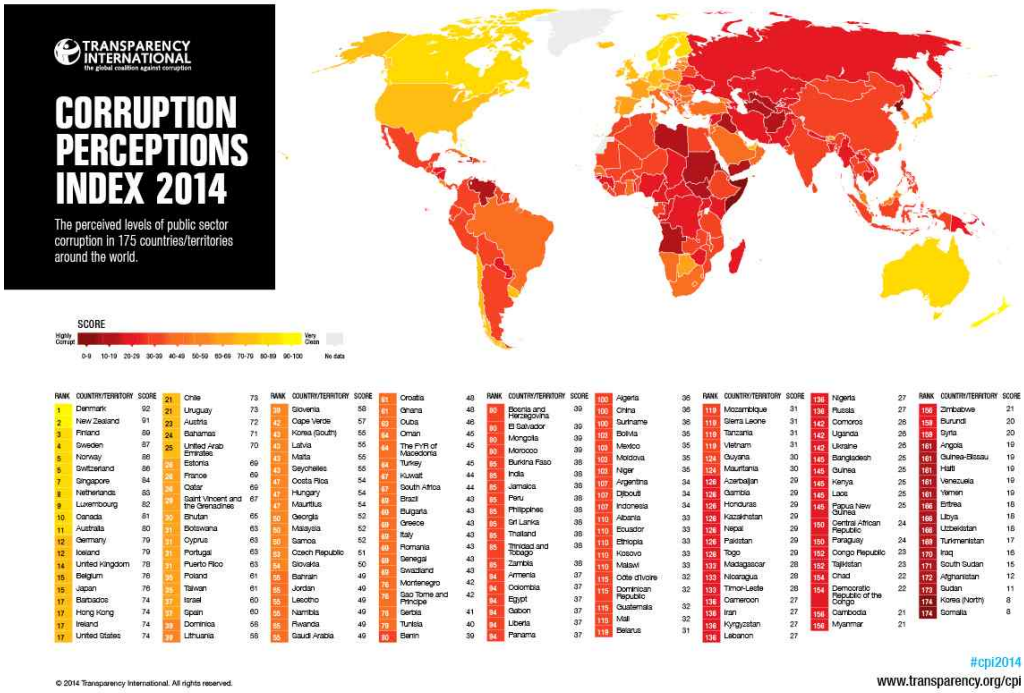
1) 부패인식지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CPI) 개발과 측정을 통해 1995년부터 매년 각 국가의 부패정도를 점수 측정 및 서열화 하여 발표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의 조사대상자는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그들을 대상으로 정치인과 공직자들 사이에 부패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가에 대한 인식조사에 근거한다. 이와 함께 1999년부터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 BPI),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 -ment Development ; IMD)이 매년 작성하는 "뇌물부패관행지수(BCPI)",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신뢰도지수(CI)" 등이 있다.

2003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세계부패바로미터" (Global Corruption Barometer, GCB) 또한 주목받는 지표이다. 이 조사는 각 나라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들에게 정당, 의회, 기업, 경찰, 사법, 언론, 세무, 의료, 교육, 국방, 공공서비스, 등록 및 인허가,NGO, 종교단체 등 15개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부패인식조사를 시행한다. CGB는 지난 1년간 7개 정부기관(경찰, 공공의료 서비스, 교육기관 등)과의 접촉유무를 묻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그림 1>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2014년 부패인식 지도[4)]



2) 청렴지수 조사

국가청렴위원회가 2000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청렴지수”가 있다. 청렴위원회에서는 부패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인식조사를 2002년부터 실시하였고, 일반국민, 공무원,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민간기업인과 청소년까지 조사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조사내용은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우리사회의 부패수준, 건설・건축, 법무, 세무 등 행정 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시계열 분석항목을 공통조사 항목으로 하고 있다.

4) http://www.transparency.org/cpi2014

3) 반부패지수 조사

서울특별시가 1999년부터 조사·공개하는 "반부패지수"(Anti-Corruption Index, ACI)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청렴도 조사이다. 위 조사를 통해 부패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상승시키는 한편, 각 자치구의 서울시공무원들의 자정노력을 유도하여 청렴도를 제고시키는 등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서울시조사는 시민접촉도가 높은 분야, 민생비리가 빈발한 분야, 일반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효과가 높은 8개 분야(위생, 주택 · 건축, 세무, 소방, 교통행정, 공원녹지, 건설 · 사, 환경)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부패에 관한 개인의 인식을 조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는 그 자체로 한계가 있다. 앞에서 살폈듯 부패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은 다양한데 반해, 동일한 설문을 통해 측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설문에 대해 부패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개인의 응답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패인식에 관한 정확한 설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무엇을 부패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될 때 적절한 설문을 구성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패인식에 관한 유형을 Q 방법론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부패는 다양한 수준,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패인식을 소수의 설문만으로는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부패 중 특히 촌지에 관한 인식에 초점을 두어 그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4. 부패를 바라보는 관점

단일한 정의로 모든 부패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현상학적 행태인 부패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 보다 풍부한 시각으로 부패를 해석할 수 있다..

Alemann(2004)의 연구는 부패를 이해하는 관점을 크게 5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부패를 사회의 타락의 결과로 이해하는 관점(corruption as social decline), 둘째는 부패를 일탈행동(corruption as deviant behavior)으로 이해하는 관점, 셋째는 부패를 사회적 교환관계(corruption as logic of exchange)로 바라보는 관점, 넷째는 부패를 측정 가능한 인식 체계로 이해하는 관점(corruption as a system of measurable perceptions), 다섯째는 부패를 그림자 정치의 일종(corruption as shadow politics)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

부패를 사회의 타락의 결과로 이해하는 관점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는 부패행위가 사회의 덕(virtues)이 헤쳐졌기 때문에 발생한 행위라고 바라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에도 계승되고 있는데, Richter(1989)는 부패는 정치적 가치를 헤치는 행위라고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과거의 사회의 올바른 상태를 가정하고, 현재의 타락한 상태를 부패로부터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관점은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 유용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의 붕괴나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이나 일본을 보면 사회의 정당한 권위(authority)가 부재하고 법에 의해 보호되는 시장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뒷거래(black market)이나 부패행위를 통해 사회가 통치되었던 사례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부패를 너무 광범위하게 바라본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반대로 보자면 위와 같은 부패행동은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

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악덕으로써의 부패는 해당 사회의 시공간적 성격에 따라 차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점의 적용에는 제한적이다.

두 번째 관점은 부패를 일탈행위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사회의 정치적 체계 내에서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둔다. Senturia(1931)는 두 번째 관점에서 공적권력(public power)을 사적이익을 위해(private profit) 오용(misuse)하는 것으로 부패를 정의하여 광범위하게 인용되었다(Alemann, 2004). 이와 같은 부패행위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하고 일종의 질병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패행위는 사회의 특정 부분을 병들게 하고 이러한 병이 확대된다면 사회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주장되는 관점이다(Anke Martiny, 2001). 그러나 Senturia의 정의는 공적권력에만 치우쳐 부패를 정의했다는 점, 오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세 번째 관점은 부패를 교환관계로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부패를 이해하는 것이다. 즉 각기 사람들이 가진 자원들을 서로의 필요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적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워 비밀리에 이루어진다고 이해되는 관점이다.

네 번째 관점은 부패를 측정 가능한 인식체계로 바라보며 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관점이다.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 2002)는 부패에 대해 사회적 인식에 따라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백색부패(white corruption), 둘째는 회색부패(grey corruption), 셋째는 흑색부패(black corruption)이 그것이다. 백색부패는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에게 용인되는 부패행위이다. 반면 흑색부패는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부패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회색부패는 사회구성원들의 생각에 따라 처벌의 유무가 엇갈리는 애매모호한 부패라고 볼 수 있다.

회색부패의 영역은 안정된 국가보다는 변환 과정에 있는 국가에서 쉽게 나타나며, 이는 많은 경우 내부자의 경우에는 백색부패라 생각하는 반면 외부자의 경우에는 흑색부패라 생각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회색부패는 부패행위의 특성, 즉 현물인지 현금인지, 부패증여자와 부패수뢰자의 이해관계, 시간적 거리 등에 영향을 받는다(Heidenheimer, 1978). 이와 같은 부패인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부패를 바라보는 인식의 저변에 다양한 생각이 전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관점은 부패를 그림자 정치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림자 정치라는 단어는 비공식적이거나 범죄행위, 물밑의 정치를 포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림자 경제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직접 관찰하기는 힘들고, 명백히 정의되기 힘든 대중으로부터 용인되기 힘든 그림자 정치행위들을 부패행위로 이해하는 것이다.

제 2 절 회색 부패

한국 행정연구원의 201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행이 공무원에 금품을 제공한 동기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 63.5%에 달한다(고길곤 & 조수연(2012); 장지연, 2010 재인용). 즉 관행이 부패의 직접적인 동기라는 것이다.

관행(慣行)이라는 말은 "버릇이 되어 익숙해진 행동"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으로 익숙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익숙한 행동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패는 일의적으로 정의되기 힘들다. 즉 부패는 사회문화적, 역사적, 문화적, 개인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인식된다. 그러한 점에서 관행은 부패와 결합할 경우 어떤 경우에는 부패로 인식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화적 다양성 내지는 특수성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일찍이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 1989:149-163)는 이와 같이 부패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어떤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부패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고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는 흑색부패(black corruption)라 하고 반대로 부패라고 생각되어지는 인식 수준이 낮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 부패를 백색부패(white corruption)이라 보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애매모호한 부패, 즉 부패에 대한 인식과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부패를 회색부패(grey corruption)이라고 보았다.

기실, 위와 같이 부패를 흑색, 회색, 백색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부패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문화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흑색, 회색, 백색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송창근·박홍식(1994)은 부패의 의미가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하향적

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닌 상향적, 즉 문화적 차원에서 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들은 누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누구에게 편익을 제공하는지에 따른 부패 여부 판단이 한국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군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 연구는 부패의 의미가 모호하게 정의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웰치와 수잔(Peters&Welch, 1978)의 경우 정치 부패에 대한 회색영역을 설문조사를 통해 탐구하였다. 저자들은 부패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특정한 조건들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그들은 공무원인 경우 동일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정치인의 경우가 비정치인의 경우보다 부패했다고 생각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적의무를 수행중일 때 일수록,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익에 공익이 아닌 사익에 돌아갈수록, 관련자가 유권자일수록, 비일상적인 행위일수록, 금품의 크기가 클수록 부패인식 수준이 높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고길곤&조수연(2012)은 관행수용도와 부패에 관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관행수용도가 높을수록 부패를 용인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부패와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즉 이 논문에서는 관행으로 수용될수록 부패라 보다는 관행에 가깝고 반대일 경우에는 부패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회색부패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회색부패는 결국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를 밝히는데서 연구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일반화를 위한 통계분석을 통해 차이를 파악하려 시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들은 근본적으로 소수의 의견이나 견해를 사상해 버린다는 점에서 다양한 인식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Q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식의 구조를 밝혀 보고자 한다.

제 3 절 교육 부패

1. 교육부패에 관한 연구

교육부패만을 특징적으로 초점을 두고 탐구한 선행연구(천영세&이종태, 2001; 이계학, 2002; 교육부패 실태조사,2012)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주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촌지현상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법적, 언론학에서의 연구(손희권, 2007;홍순표,1999;김채환;1998)는 있지만 이에 대해 Q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한 인식유형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육부패의 원인은 입신출세주의에 있다고 본다. 즉, 입신출세를 위해 교육부패를 통해 남보다 앞서가려하고, 결국 고학력 사회가 될수록 교육부패는 더욱 많아지고 이는 사회전체의 부패로 확산되어간다는 것이다(천영세&이종태, 2001; 이계학, 2002). 이와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격중심의 교육 및 인재선발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천영세&이종태, 2001; 이계학, 2002).

또한 천세영·이종태는 교육부패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며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제1유형은 초중등교육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교육소비자가 더 나은 교육적 이익을 구하려는 욕구와 그러한 교육수요 배분권을 독점하는 공직자가 만날 때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장의 불법적 학교운영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행위이다. 그리고 부교재를 둘러싼 비리, 교사 등에 의해 발생되는 성적 조작을 들 수 있겠다. 제2유형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비리이다. 즉, 교육에 대한 초과수요는 촌지나 특별활동에서의 금품수수등이 대표적이다. 제3유형은 교육재정의 운영과 관련된 부패이다. 이는 교육관련산업에서 교육 사업자가 각종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결탁하여 발생하는 부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 시설 공사나 물품구매와 관련된 예를 들 수 있다. 제4유형은 주로 고등교육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패이다. 교육의 수준이 낮거나 교육여건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학교 연구비 집행 또는 교수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말한다. 끝으로 제5유형은 모든 이전의 원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부패이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사학 관련 부패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육부패는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부패의 일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교육부패는 높은 교육열과 학연 중심의 사회 구조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등 교육으로 갈수록, 교육공무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 행정 정치영역으로 갈수록 경제적 사회적 이익 추구, 개인의 경제적 욕망과 권력 관계로 인한 부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부패의 개인, 사회문화, 제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일반적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교육 부패 유형의 정리

학자	구체적 원인 및 유형
이계학 (2006)	입신출세주의와 고학력 사회
천세영 · 이종태 (2001)	(유형Ⅰ) 초중등교육에서 교육소비자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지배적 관계 유지
	(유형Ⅱ) 초중등교육의 여건 미비로 인한 교육가격과 서비스의 질 간의 불일치 지속
	(유형Ⅲ) 교육재정 운영에서 교육관련 산업 종사자의 경제적 이익 추구
	(유형Ⅳ) 고등교육에서 직·간접적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익 추구
	(유형Ⅴ) 상호 복합적 요인의 대형 부패

교육부패의 사례들을 유형화한 연구는 있으나, 교육부패에 대해 사

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 자료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회색부패의 인식유형에 초점을 두어 교육부패의 사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촌지라는 현상은 선생님에 대한 따뜻한 마음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육부패의 전형적이 예라고도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교육부패가 다양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현상들 간략하게 개괄하고 촌지 현상에 관한 보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언론을 통해 나타난 교육기관별 부패의 유형

실제로 교육 관련 부패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검찰청(2012)는 언론에 보도된 교육기관의 교육 부패에 관하여 <표6>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 촌지관련 언론 보도는 초·중등학교에서 주로 발생되는 대표적인 교육부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촌지와 관련된 검색어를 통해 검색한 결과 다양한 촌지관련 보도를 접할 수 있었다.

<표 5> 교육기관별 부패의 유형

관련기관	부패유형
교육과학기술부	▪ 고위직 공무원 편법 학위취득 및 대학 강의 (고용휴직제 악용, 국비연수 중 학위취득) ▪ 유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인사비리(기관장 내정, 전관예우)
지역 교육청	▪ 교장 및 장학사 인사 청탁비리(매관매직) ▪ 국고 횡령 ▪ 뇌물 수수
초·중등학교	▪ 성적조작 (학업성취도평가 등) ▪ 뇌물 수수 (학교 시설, 급식, 수학여행 등) ▪ 촌지 ▪ 불법 찬조금 모금
대학교	▪ 연구비 횡령 ▪ 교비 횡령 ▪ 인사 관련 비리 ▪ 입학 전형 비리 (장애인, 외국인, 농어촌 조작) ▪ 학위 취득 관련 비리 ▪ 학사 운영 비리 (학점 및 자격증 취득) ▪ 신입생 허위 등록 ▪ 부정 입학 ▪ 체육 특기자 금품 스카웃 ▪ 교수 채용 비리
사학재단	▪ 회계장부를 통한 부정 ▪ 물품구매, 시설공사 관련 ▪ 학교 재산의 불법 처리 ▪ 교직원 채용 비리 ▪ 족벌운영

출처 : 교육부패 실태조사(대검찰청, 2012;14)

▪ 과도한 촌지를 수수한 경우

감사원 조사결과 서울 A초등학교 교장은 지난해 1월 수학여행 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약업체로 부터 150만원의 뒷돈을 받았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교장 집무실에서 학부모 5명으로부터 촌지 5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학교 교장은 2천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매년 스승의 날 직전 학부모로부터 촌지 150만원을 수수했다. 학교급식 납품이나 시설공사 계약업체들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로 수백만 원을 수수한 교장도 적발됐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7개 업체로부터 모두 700만원을 챙겼다. 서울 또 다른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간 급식이나 시설공사 업자에게 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컷뉴스, 2011-11-0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촌지 근절 방안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처음 적용돼 앞으로 비리 교사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서울 반포동 계성초등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촌지 수수가 확인된 교사 2명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100여 만원과 상품권 200여 만원, 30만원 상당의 한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학부모로부터는 지난해 5월부터 2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등 130여 만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11월 돌려줬다. 같은 학교 교사 B씨도 2013년 담임을 맡았던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 300여 만원과 상품권 100여 만원 등 40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사실을 확인한 교육청은 곧바로 해당 학교법인에 두 교사의 파면에 기하는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중앙일보, 2015-01-13)

《초등학생 자녀를 둔 박모 씨(38·여)는 지난해 말 담임교사에게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속병을 앓았다. '1년 동안 아이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내용. 박 씨는 "종업식을 앞두고 선생님에게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그러다 학교에 청소 봉사활동을 가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대뜸 '○○ 엄마는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라고 물어봐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촌지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는 초등학교 교사(45·여)가 학부모들에게 명품 핸드백을 포함해 1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일부 교사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학부모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부모 이모 씨(41·여)도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담임 여교사가 오후 10시에 예고 없이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웬 남자가 동행했다. 어리둥절해 하는 이 씨에게 교사는 "결혼 날짜를 잡았다"며 남자를 인사시켰다.
당시 어쩔 수 없이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건넸다는 이 씨는 "명품백 촌지 교사 얘기를 듣고 몇 해 전 경험했던 이 일이 떠올랐다. 나이 든 교사뿐만 아니라 젊은 교사도 촌지를 받는 데 능숙하다는 것은 촌지 문화가 만연돼 있다는 방증"이라고 혀를 찼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학부모는 "아들이 이번에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는데 덩치가 작아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이다. 주위에서 담임교사에게 일단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해 액수를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교사에게 상납하는 촌지 액수가 일반화돼 있을 정도다. 서울 강남 지역이 50만 원, 경기 분당 지역이 30만 원, 그 외 지역이 10만~20만 원이다.
거액의 학부모 회비를 강요받기도 한다. 특목고에 입학할 자녀를 둔 학부모는 "지난달에 학부모회에서 회비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아이들 간식비와 스승의 날 선물비 등으로 1년에 1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며 "내자니 지나치게 많은 불법 찬조금이고, 안 내자니 내 아이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봐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부희 상담실장도 "촌지뿐만 아니라 불법 찬조금 형태의 변형된 촌지 문화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개학 초기인 3~5월에 상담 건수가 집중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2013-12-10)

▪ 촌지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청간의 인식차를 보여주는 기사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로부터 스승의 날 선물로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현직 여교사를 징계했다. 교육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시교육청이 이런 특단의 대책을 내놓자 '촌지와 선물의 경계선'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다수의 학부모가 촌지를 교사에 대한 일종의 '감사의 표시'로 여기는데 반해 교육당국은 감사표시로 받은 선물 대부분을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 촌지는 감사의 표시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1660명을 대상으로 촌지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설문조사 결과 '촌지를 준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18.6%였고 서울 강남지역 학부모는 전체 평균의 배인 36.4%나 됐다. 특히 학부모 대부분(70.5%)은 촌지를 '감사의 표시'로 생각할 뿐 '자녀를 잘 봐달라는 의미'라고 여기는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건넨 촌지는 5만원이 52.9%로 가장 많았고 10만원이 37.4%로 뒤를 이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여전히 상당수의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식사 등을 촌지가 아닌 선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자료를 볼 때 교사들도 이런 선물을 관행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3만 원 이상은 촌지시교육청이 제시한 촌지와 선물의 구분 기준을 보면 학부모들 인식과 큰 차이가 난다. 시교육청의 금품수수(촌지) 기준 등 복무규정에 따르면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받은 교사 대부분이 징계 대상이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모든 교직원은 학부모 등에게서 3만 원 이상 선물이나 식사, 교통비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능동적으로 요구해 선물 등을 받았을 때는 액수에 관계없이 촌지를 수수한 것이 되고 3만원 미만 선물이라도 여러 차례 받았다면 이를 합산해 촌지인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처벌 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촌지 수수 관행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본다"며 "특히 사상 처음 촌지 수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 만큼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촌지'도 유행한다는 얘기가 돌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촌지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면 거의 모든 선물이 촌지로 해석돼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교육청 직원은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에게 상품권 등 3만 원 이상 선물을 건네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선물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11-1-12)

▪ 아직도 촌지 문화가 상존하고 있다는 사례

촌지' 교육현장 학부모 '불신의 벽' 여전

익산시 모현동의 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둔 정미경 씨(가명)는 '촌지와의 전쟁'에서 허무하게 항복한 기억에 아직도 마음이 불편하다.
그는 "결코 촌지를 줄 생각이 없었는데 알림장에 '아이가 산만해서 다루기 힘들다'는 식으로 몇 차례나 적혀 있어 주변에 물어봤더니 학교에 한번 오라는 얘기라고 하더라"며 "선생님을 찾아가 촌지를 준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아이가 계속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라는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다는 그는 "촌지를 준 이후 선생님의 태도가 친절하게 바뀌는 것을 보고 이제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촌지를 챙기고 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예전보다는 촌지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학부모와 교사의 촌지 수수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 부송동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김순애 씨(가명)는 학년 초가 시작되면서 담임교사로부터 면담요청을 받고 최근 학교 방문에 나섰다가 겪은 황당함으로 인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이 남아 있다.
아이가 정서불안에다 가정교육까지 안되어 있다는 선생님의 지적을 전화로 받고 크게 놀라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간 김씨는 "너무 다급한 나머지 돈 봉투를 챙기지 못하고 성의표시로 음료수를 사갔는데,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음료수를 싸 간 봉투를 거꾸로 털어 보는 모습을 보고 순간 아차했다"고 말했다.

"현금은 아무래도 뇌물의 느낌이 강하고 껄끄러워 음료수를 사간 것이 큰 실수였다"는 그는 "짧은 면담과정을 통해 앞으로 학교 행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하자 선생님의 얼굴색이 그제야 환해지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2011-3-23)

▪ 한국에서의 촌지관행의 역사적 맥락

자그마한 뜻'이란 의미의 촌지(寸志)는 원래 자식을 보살펴준 선생님에게 학부모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작은 선물을 뜻했다.
따라서 너도나도 어렵게 살았던 시절 학부모들이 건네주는 촌지도 참기름, 고구마, 감자, 계란, 떡, 참외, 수박 등 마음에서 우러나온 먹을거리가 대부분이었다.
자식 3명을 시골에서 키운 할머니 권경녀(79) 씨는 "1960년대에는 도시지역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사들이 농촌지역으로 대거 부임했다. 학부모들은 자취방이나 관사에서 지내는 총각 교사나 교사 부부에게 갓수확한 채소나 농산물을 한 보따리 보내는 것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여유가 있는 집들이 늘어나고 교육열까지 높아지면서 학부모와 교사 간에 오가는 촌지는 뇌물로 변질했다.
부모들은 '내 자식을 잘 봐달라'며 교사에게 현금 봉투를 주기 시작했다. 학생의 가정 형편을 이해하기 위해 실시했던 가정방문도 촌지 수수의 기회로 여겨져 부모들은 집을 나서는 교사를 쫓아가 자식 모르게 돈봉투를 건넸다.
학부모와 교사가 현금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는 것은 관행으로 굳어졌고 1990년대 초반까지는 학내외에서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그러나 촌지 수수가 극에 달했던 1980년대 말 전교조가 '촌지 안 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촌지 수수 교사들이 처벌을 받기 시작하면서 촌지는 또다시 변모했다.
돈봉투의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대신 금팔찌나 양주, 포도주, 외제 화장품, 백화점 상품권, 주유권, 골프용품 등 고가의 선물이 그 자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선물은 줘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생각 아래 명품 핸드백이나 스파 이용권 등 비정상적인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에는 촌지도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의 길을 걷고 있다.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고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일부 학부모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이나 모바일 선불카드를 보내는 일도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 2010-8-18)

▪ 촌지를 페어플레이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언론기사

떡값, 목욕비, 기름값, 회식비…. 촌지(寸志)가 오고 갈 때 흔히 붙는 말들이다.안풀리는 일을 잘 되게 해 달라며, 우리 애 잘 봐달라며, 표 구해 달라며, 자리 예약해 달라며, 도와줘 고맙다며 주고 받는 촌지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관행화 된 지 오래다.
액수가 적고 '누이 좋고 매부 좋기' 때문에 큰 죄의식 없이 주고 받아온 이런 촌지 관행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보이지 않게 병들어 왔다. 정상적인 일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등 페어플레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이다.
촌지는 한때 '미덕'으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페어플레이의 적'일 뿐이다.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촌지 관행을 하루빨리 도려내야 한다는 게 뜻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학교 촌지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의사, 법조인, 기업체 임원 등 상류층 학부모들이 매달 직업군별로 정기 모임을 갖고 교사에게 촌지를 건넨다.
남편이 의사인 박모씨(39)는 "의사 학부모들이 매월 모임을 갖고 한 명당 20만~30만원의 촌지를 걷어 교사에게 전달한다"며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달이 수월하고 액수도 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학교 촌지는 대표적인 '방어적' 성격의 촌지. 혜택을 보자는 것보다는 주지 않아 받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J씨(32)는 "학기 초와 스승의 날, 추석 등 명절에 각각 20만원씩 교사에게 촌지를 주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경양(朴慶陽) 부회장은 "학교 촌지에서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의미는 오래 전에 퇴색했다"며 "원칙에 따라 일이 처리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회문화가 학교 촌지를 야금야금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2002-4-3)

▪ 90년대 한국의 촌지실태 조사를 보도한 기사 자료 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학부모 1백 명 중 55명이 교사들에게 촌지를 줬으며 1인당 제공한 평균금액은 14만1천8백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촌지는 스승의 날에 선물로 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1차례 평균 6만~10만원이 보통이었으며,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촌지가 사회문제화한 이후 액수를 줄이거나 주지 않게 됐다고 답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연구관은 서울시내 초·중·고생 학부모 7백27명을 상대로 1대 1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백90명(37명은 무응답) 중 3백81명(55.2%)이 촌지를 줬다고 답했으며 3백9명(44.8%)은 주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촌지를 준 학부모 가운데 31.6%는 전년과 비교할 때 촌지수수 행위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나 '줄었다'(28.1%)거나 '주지 않게 됐다'(20.8%)는 대답도 48.9%에 달해 촌지수수 관행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줬다.
촌지가 줄게 된 원인으로는 IMF 등 경제적 사정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의식의 전환, 촌지 교사에 대한 징계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촌지제공 시기를 보면 스승의 날이 2백59명(평균 6만5백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년 초 1백55명(9만4천8백 원),입학식과 명절이 각각 45명(9만3천5백 원),교사 생일날 15명(7만원) 순이었다. 스승의 날 촌지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여러 학부모들이 크고 작은 선물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학년 초에는 자녀를 잘 봐 달라는 청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일보, 1999년 4월 2일)

▪ 90년대 한국의 촌지실태 조사를 보도한 기사 자료 ②

촌지(寸志)의 사전적 의미는 조그마한 뜻 또는 그런 뜻을 담은 선물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정원을 나타내는 '가든'이 생고기 등을 파는 식당의 대명사가 된 것 처럼 뇌물을 일컫는 말로 통용된 지 오래다. 최근엔 이 말을 '뇌물성 금품'으로 뜻풀이를 한 사전까지 등장했다. 촌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학교다. 교육당국은 고질화한 교사들의 촌지수수를 막기 위해 촌지거부교사 포상과 촌지신고센터설치 등 갖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촌지거부교사 우대방침은 교사가 촌지를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상을 주어야 하느냐는 여론 때문에 무산됐다. 촌지신고센터도 마찬가지다. 학생에게 스승의 잘못을 신고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단 한건의 신고도 받지 못한 실정이다.
대구지법이 그제 학부모 2명에게 촌지 15만원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액수는 적지만 교사가 학부모에게 받은 촌지는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데다 어린학생들을 구박해 돈을 뜯어낸 것이나 다름없어 죄질이 나쁘다는 게 촌지교사에 대한 첫 유죄판결 이유다.
이 판결은 교사들의 무분별한 촌지수수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사가 학부모에게 받은 돈을 무조건 뇌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학부모가 작은 선물도 주지 못하는 교단은 너무 삭막해 진다.
정치권 등 다른 분야와 형평에도 어긋난다. 기업 등에서 서민은 평생 구경도 못할 거액을 받고도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라고 강변하는 공직자가 한둘이 아니다. 정치인 등에게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품을 받고 하수인노릇을 한 기자들도 있다. 이들 정-경(政-經) 정-언(政-言)유착비리 관련자들의 죄질이 푼돈 받은 교사보다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돈봉투 없이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마당에 교육현장까지 법으로 다스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세계일보, 1999-11-12)

이상의 신문기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으로 과거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에서 시작된 조그만 선물을 드리는 관례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부패의 만연과 더불어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전교조의 촌지 안 받기 운동, 사회정화 노력과 이에 따른 사회분위기가 바뀌면서 촌지는 뇌물이라는 인식이 확산

되었으나, 감사의 마음표시와 뇌물 사이의 회색지대(grey zone)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촌지 문제에 관하여 탐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회색부패의 단면을 탐구하는데 적절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교육 부패라는 것은 단순히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현대 한국 사회의 부패의 현실을 다각도로 보여 줄 수 있는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패의 다양한 현상을 대상으로 Q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부패인식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3. 교육 부패 중 촌지가 발생하는 유인 구조

앞서 다루었듯, 교육부패 중 일반 시민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번쯤 접할 가능성이 높은 촌지에 대해 기사나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심층적으로 연구한 학술자료는 비슷한 연구주제로 일반부패에 대한 연구나 관행에 관한 연구, 교육부패 전반에 관한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촌지는 일반 부패나 관행과 다른 부분이 많다. 우선, 부패행위자 집단을 한 가지 성격으로 규정할 수 없고 한국사회의 '정', '스승에 대한 존경', '인사'문화와 더불어 변칙적으로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촌지를 부패로 규정한다면, 부패공급자인 학부모 간에도 편차가 심하다. 촌지를 공급하는 학부모와 전혀 촌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주지도 않는 학부모로 나눌 수 있고, 촌지는 주는 학부모 간에도 소액을 주는 학부모와 고액을 주는 학부모로 양분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촌지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패공급자인 학부모의 이익정도과 부패수혜자인 교사의 손해정도를 기준으로 촌지부패 발생에 관하여 분석해보았다.

촌지수혜자인 교사는 촌지로 인한 금전적 이익의 정도보다는 촌지행위 적발에 대한 손해에 민감한 경향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촌지공급자인

학부모는 촌지행위 적발에 대한 손해가 없으므로 촌지로 인한 자녀편애라는 이익에 민감한 특징이 있다. 실제로 교육청 사례집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촌지를 받은 교사에 대한 적발과 징계는 있지만 학부모가 촌지공급으로 인해 실제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또한 학부모가 촌지를 주는 행위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민감하다면 처음부터 촌지를 건네지 않게 된다. 이는 촌지에 관심이 없는 학부모에 속하기 때문에 자녀편애라는 이익에도 관심이 없을뿐더러, 발생하는 다른 학부모의 촌지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 매트릭스에서 '이익 없음'에 해당되어 관심을 가질 유인이나 이익이 전혀 없게 된다.

<표 6>은 부패공급자의 이익구조와 부패수혜자인 교사의 손해구조로 정리하였다. 우선 부패공급자의 이익은 촌지를 줌으로써 자녀가 촌지로 인해 편애를 받는 정도를 말한다. '이익 없음'은 교사에게 촌지를 줘도 자녀가 선생님에게 편애를 받지 않는 구조로 촌지를 주는 행위자체가 무의미하다. 두 번째로 '이익적고집중'은 촌지액수가 적으므로 촌지 이후 교사가 단기적으로 편애를 하는 경우이다. 이는 본 연구 사전인터뷰조사에서 추출한 항목으로, 고액이라고 할 수 없는 촌지액수인 10만 원 정도로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가 촌지효과로 일정기간동안만 자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표가나게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익적고분산'은 촌지를 주고 나서 자녀가 편애를 집중적으로 받지 못하고, 학생들 전체에게 단기적으로 신경을 쓰는 경우로 이 경우 촌지는 자녀편애를 위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선생님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수준에 한정되는 경우다. 이때 학부모는 촌지를 줘도 안줄때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액수를 적게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표 6> 촌지부패 발생에 관한 분석틀

		손해 = 적발 가능성, 적발로 인한 징계수준				
		없음	적고 집중	적고 분산	많고 집중	많고 분산
이익 = 자녀 편애	없음	부패공급자 -안하려함 부패수혜자 -적극받으려함	부패공급자 -안하려함 부패수혜자 -적게받으려함	부패공급자 -안하려함 부패수혜자 -받으려함	부패공급자 -안하려함 부패수혜자 -절대안받으려함	부패공급자 -안하려함 부패수혜자 -절대안받으려함
	적고 집중	부패공급자 -하려함 부패수혜자 -적극받으려함	부패공급자 -하려함 부패수혜자 -적게받으려함	부패공급자 -하려함 부패수혜자 -받으려함	부패공급자 -하려함 부패수혜자 -절대안받으려함	부패공급자 -하려함 부패수혜자 -절대안받으려함
	적고 분산	부패공급자 -적게하려함 부패수혜자 -적극받으려함	부패공급자 -적게하려함 부패수혜자 -적게받으려함	부패공급자 -적게하려함 부패수혜자 -받으려함	부패공급자 -안하려함 부패수혜자 -절대안받으려함	부패공급자 -안하려함 부패수혜자 -절대안받으려함
	많고 집중	부패공급자 -많이하려함 부패수혜자 -적극받으려함	부패공급자 -많이하려함 부패수혜자 -적게받으려함	부패공급자 -많이하려함 부패수혜자 -받으려함	부패공급자 -많이 하려함 부패수혜자 -절대안받으려함	부패공급자 -많이 하려함 부패수혜자 -절대안받으려함
	많고 분산	부패공급자 -같이하려함 부패수혜자 -적극받으려함	부패공급자 -같이하려함 부패수혜자 -적게받으려함	부패공급자 -같이하려함 부패수혜자 -받으려함	부패공급자 -같이 하려함 부패수혜자 -절대안받으려함	부패공급자 -같이 하려함 부패수혜자 -절대안받으려함

계속해서 '이익많고 집중'은 촌지효과로 인해 자녀가 적극적인 편애를 받는 경우로 촌지를 주는 행위의 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적극적으로 많이 하려하는 행동구조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익많고 분산'은 촌지를 주고 나서 선생님이 학생들 전체에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로 이 경우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과 액수를 나누어 같이 하려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다음은 부패수혜자인 교사로 손해는 즉, 촌지를 받을 때 적발될 가능성, 혹은 적발로 인한 징계수준의 위험정도를 말한다.
먼저, '손해 없음'은 촌지를 받은 것이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없거나, 적발되어도 처벌을 안 받는 경우이다. 과거 촌지가 지금같이 고액으로 번지지 않고 가벼운 인사수준일 때가 해당될 수 있고, 촌지적발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때 교사는 매우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행동구조를 갖게 된다.
'손해적고 집중'은 촌지를 받은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혼자 가볍게 주의정도를 받는 수준으로 이때 교사는 적게 받으려하고 약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손해적고 분산'은 적발되더라도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등에게 가볍게 주의를 받는 수준, 혹은 다른교사들도 많이들 받기에 위험이 분산되기에 이에 해당되며 이때 교사는 촌지를 대체로 받으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손해많고 집중'은 적발되면 혼자 파면되는 수준 등 징계가 교사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무겁고 돌이킬 수 없기에 촌지의 액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절대 받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유형에는 무거운 처벌이 실제 시행되고 다른 교사가 처벌을 받는 사례를 접하면서 교사의 차후 행동에 선례가 영향을 받았던 사전인터뷰의 사례가 반영되었다. 마지막으로 '손해많고 분산'의 유형은 적발되면 파면수준에 다른 교사들까지 징계 받는 수준으로 이 유형 역시 교사는 촌지자체를 절대 안받으려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를 조합한 결과 교육부패 중 촌지부패가 발생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촌지로 인해 교사가 받는 징계수위가 낮은 경우, 혹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줌으로써 자녀가 (자녀 개인적 학교생활로 얻은 편애가 아닌) 촌지로 인해 편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에 액수에 차이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촌지는 발생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촌지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도 도출되었다. 촌지가 없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촌지로 인한 징계수위가 매우 높거나 촌지를 주더라도 자녀가 편애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는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

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소액에도 그 처벌이 교사의 파면수준으로 교사의 손해가 매우 높다. 두 번째로 촌지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떠한 금전적 유혹에도 학생들을 편애하지 않게끔 하는 교사들의 직업윤리를 들 수 있으며 이를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를 들 수 있다.

제 3 장 연구 설계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중심으로 부패인식유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부패인식유형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Q 연구 방법론을 활용할 것이다. Q 방법론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주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즉 객관적 방법을 통해 주관성을 표현하여 인식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Stephenson(1953)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러한 분석방법이 발전하게 된 이론적 배경에는 기존의 공식적·합리적·기능적 접근법의 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합리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등장한 현상학·해석학적 방법에서는 다양한 인간들의 주관성,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바탕으로 상호이해와 담론(discourse)을 강조하며 현상과 존재를 합의된 간주관성으로 파악한다(김순은·윤상오, 2001).

Q 방법론은 현상학 및 해석학의 입장을 계승하되 요인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Q 방법론은 현상을 연구자(관찰자)의 입장이 아닌 행위자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주관적이다. 하지만 행위자들의 관점을 요인분석의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방법인 것이다(Brown, 1980; 김순은, 2007).

Q 방법론의 특성은 그 연구절차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Q 방법론의 연구절차는 크게 Q진술문의 구성, P샘플의 선정, Q분석으로 구성된다. Q진술문은 '의견(opinion)', 즉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주관적 진술로 구성된다. 이 진술문 내용의 출처는 개인들에 대한 인터뷰, 주제에 관

한 선행연구, 신문기사 등 개인의 주관적 진술과 학술연구에 근거한 주장과 언론매체의 입장을 반영하여 인간상황을 왜곡하지 않게 설계된 문항이다(Brown, 1980; 김순은, 2007).

P샘플의 선정은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P샘플을 대상으로 Q분류를 시행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설문에 있어 개인이 지닌 Q진술문에 대한 중요도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선정된 P샘플은 Q분류를 할 때 Q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서열화함으로써 개인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다(Brown, 1980; 김순은, 2007; 김홍규, 2008).

마지막으로 Q분석은 위와 같이 수집된 응답 값을 토대로 분석한다. 분석은 P 표본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요인분석과 요인 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요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절차로 진행된다. 즉 요인분석을 통해 응답자들 간의 응답 값의 유사성을 토대로 인식유형이 분류되는 것이다. 각 연구절차별 순서대로 강조되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7> Q 연구방법론의 절차

순 서	내 용
Q 진술문 작성	▪ 선행연구, 신문기사 등을 토대로 Q 진술문을 작성 ▪ 이때 Q 진술문은 사실이 아닌 개인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의견(opinion)으로 구성되어야 함 ▪ 그러므로 Q 진술문은 응답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론(theory)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Q 진술문은 체계적(systemic) 구조를 전제로 구성할 때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설문의 개수는 30~50개 정도가 적당함. 소수일 경우 개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힘들고, 다수일 경우 측정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음
P 샘플 선정	▪ 다양한 인식유형을 반영할 수 있는 P샘플을 선정 ▪ 이때 P샘플 선정은 인식유형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통계적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님
Q 설문 시행	▪ Q 설문의 핵심은 다양한 의견간의 선호, 즉 위계적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임. ▪ 설문조사자는 응답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하게 설문을 시행하는 것이 정확한 값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Q 분석	▪ PQMetho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응답 값을 분석 ▪ 이때 분류된 요인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특성을 파악 하여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른 유형에 따라 공통된 선호 값을 가지는 설문항이 도출될 수 있음

제 2 절 연구 설계

1. Q 진술문의 설계

선행연구와 신문기사를 토대로 교육부패와 촌지 현상에 관한 인식유형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Q진술문 작성을 위한 프레임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교육부패 가운데 촌지현상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부패는 선행연구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현상들이 결합되고 종합된 무엇이다. 따라서 교육부패의 모든 현상들에 관하여 인식유형을 살피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패 가운데 특징적이고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에 널리 알려진 부패 유형인 촌지 현상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8> Q 진술문 작성을 위한 프레임

구 분	문항수
부패원인에 대한 의견	13
촌지와 관련된 부패행태에 대한 의견	8
부패와 관련된 가치관에 관한 의견	13

즉, 본 연구에서는 부패원인에 대한 생각과 부패와 관련된 가치관이 촌지에 대한 부패 행태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인식유형 간에 부패행태에 관한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Q 진술문을 구성하였고, 총 설문항은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9> Q 진술문

Q 번호	Q 설문
1	선생님께 촌지 등을 통해 감사표시를 하면 내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다른 학생에 비해 관심을 아무래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2	내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다소 무리하더라도 촌지를 드릴 수 있다.
3	우리 아이가 왕따 등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촌지를 적당히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4	적당한 수준의 촌지를 드리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5	학생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선생님을 위해 스승의 날에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선물을 주는 것은 좋은 전통이다.
6	박봉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기 보다 존경의 표시이다.
7	주변 학부모들 가운데 다수가 선생님께 촌지를 준다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도 촌지를 주게 될 것이다.
8	교육 분야에 만연한 촌지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나의 자식도 부당한 피해자가 되기 싫기 때문에 촌지를 줄 것이다.
9	선생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격무, 박봉)은 선생님들이 촌지의 유혹에 약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10	교육 및 행정당국의 느슨한 규율은 촌지 관행을 뿌리뽑지 못하고 있다.
11	교육분야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 분야(건설, 교통, 노동 등)보다 부패하다.
12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는 촌지 관행을 악화시킨다.
13	3만원 상당의 양말을 사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부패한 행위이다.
14	3만원 현금을 선생님께 우리아이를 잘 부탁한다면서 드리는 행위는 부패한 행위이다.
15	스승의 날 25명의 부모들이 2만원씩 돈을 모아 "3학년5반 학부모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이다.
16	진로상담일에 선생님께 10만원 촌지를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이다.
17	딸의 졸업식에 담임선생님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10만원의 상품권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18	아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과거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존경의 마음으로 현금 10만원씩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볼 수

	없다.
19	선생님이 학생을 통해 학부모들로부터 3만원씩 기부금을 강제적으로 받아 교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비치한 선생님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
20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담임선생님께 4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21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에 따라 스승을 극진히 모셔야 한다.
22	교육은 학생의 전인적인 인격을 기르는 것이 학습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하다.
23	교육 분야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교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24	부패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25	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사회와 국가가 붕괴될 것이다.
26	부패는 사회의 정의를 심각하게 헤친다.
27	교육은 과거와 달리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8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29	교육 분야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엄격하고 과감한 처벌이 필요하다.
30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선생님을 즉각 파면 조치하는 것은 올바르다.
31	우리사회에서 적당히 부패하지 않고서는 남들보다 앞서기가 힘들다.
32	우리사회는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근절되어 깨끗한 사회가 되었다.
33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부패가 감소되었으나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패가 만연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34	우리나라 정부는 신뢰할 수 없다.

한편 34개의 Q샘플에 촌지와 관련된 다양한 부패행태를 8개의 설문항으로 구성해 포함하였다. 해당 설문은 명백한 부패행위라고 보이는 설문에서부터 애매모호한 회색부패(grey corruption)과 같은 부패 행위라고 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로 특성은 <표3-3>과 같다.

<표 10> 부패행태에 관한 설문

교육부패(촌지) 관련된 Q설문	촌지 특성
진로상담일에 선생님께 10만원 촌지를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이다.	현금, 이해관계, 직접전달, 사익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담임선생님께 4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현물, 이해관계, 간접전달, 사익
선생님이 학생을 통해 학부모들로부터 3만원씩 기부금을 강제적으로 받아 교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비치한 선생님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	현물, 이해관계, 강제수금, 공익
3만원 현금을 선생님께 우리아이를 잘 부탁한다면서 드리는 행위는 부패한 행위이다.	현금(소액), 이해관계, 직접전달, 사익
딸의 졸업식에 담임선생님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10만원의 상품권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현금, 이해관계 없음, 직접전달
3만원 상당의 양말을 사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부패한 행위이다.	현물(소액), 이해관계, 사익
아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과거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존경의 마음으로 현금 10만원씩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볼 수 없다.	현금, 이해관계 없음
스승의 날 25명의 부모들이 2만원씩 돈을 모아 "3학년5반 학부모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이다.	현금, 이해관계, 공동전달(사익추구 어려움)

2. P 샘플의 선정

인식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P샘플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P샘플은 다양한 인식유형을 드러낼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Heidenheimer(1978)에 따르면 회색부패, 백색부패, 흑색부패의 인식을 가르는 기준으로 관련된 부패행위의 내부자에 속하는지 아니면 외부자에 속하는지에 인식의 판단기준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육부패 특히 촌지와 관련된 행위에 내부자에 속하는지 외부자에 속하는지에 따라 P샘플을 네 가지 유형으로 선택하였다.

첫째 유형은 학교 선생님이다. 학교 선생님은 직접적으로 촌지를 수수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내부자에 속한다. 둘째 유형은 학부모인데 실제 교육 조직에 속한 사람은 아니므로 외부자라고 볼 수 있지만, 촌지를 공급하는 직접적 행위자로서 부패행위 내부자 특성 또한 가지고 있다. 정리하면 촌지부패 행위를 하는 학부모는 내부자로, 촌지부패를 행하지 않는 학부모는 외부자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유형은 미혼/학생이다. 이 유형은 외부자라고 볼 수 있으며, 아직까지 사회생활이나 직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패 현실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을 것이며 이상적으로 부패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유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미혼/직장인이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촌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으나 직장인으로 사회의 부조리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P샘플의 선정유형으로 선택하였다.

P샘플의 유형을 외부자의 관점에서 내부자의 관점의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는 미혼/학생, 미혼/직장인, 학부모, 교사의 순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식유형에 관한 것으로 자신이 속한 환경에 반드시 인식까지 순응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하기 때문에 Q방법론이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P샘플 프레임에 근거하여 P샘플을 구성하면 아

래의 표와 같다.

<표 11> P 샘플의 구성표

P샘플 번호	성별	나이	특성
1	여자	27	미혼/학생
2	여자	28	미혼/학생
3	여자	28	미혼/직장인
4	여자	27	미혼/직장인
5	남자	28	미혼/학생
6	남자	28	미혼/학생
7	남자	28	미혼/직장인
8	남자	28	미혼/직장인
9	남자	58	학부모
10	여자	55	학부모
11	여자	37	교사
12	여자	40	교사
13	남자	54	교사
14	남자	61	교사
15	여자	35	학부모
16	여자	35	학부모
17	남자	35	학부모
18	여자	32	미혼/학생
19	남자	40	학부모
20	여자	32	미혼/직장인
21	남자	35	미혼/직장인
22	남자	31	미혼/학생

총 22명을 대상으로 P샘플을 선정하였다. 남자는 11명, 여자는 11명이며,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20대는 8명, 30대는 8, 40대는 2명, 50대 이상은 4명이다. 그리고 학부모는 6명, 교사는 4명, 미혼이며 학생 또는 직장인은 각각 6명씩 총12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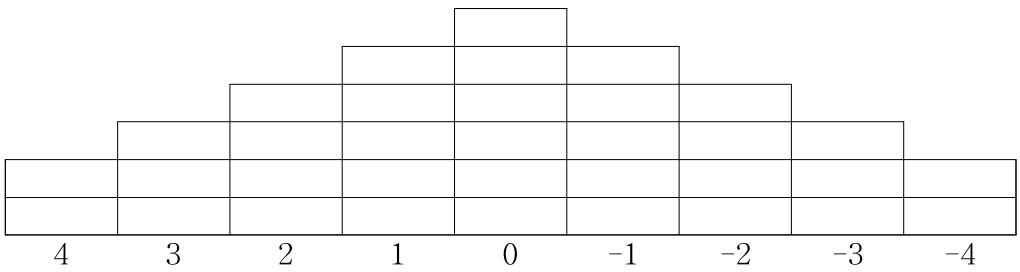
<표 12> P샘플의 사회 경제적 특성

구분	기 준	인원(명)
성별	남 자	11
	여 자	11
세대	20 대	8
	30 대	8
	40 대	2
	50대 이상	4
특성	미 혼 / 학 생	6
	미 혼 / 직 장 인	6
	학 부 모	6
	교 사	4

3. Q 분류 및 분석

Q분류를 위해 해당 P샘플 대상자에게 본 Q샘플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고 동의와 비동의를 기준으로 서열화 하여 응답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아래의 표와 같은 양식에 왼쪽부터 동의하는 순서대로 서열화한 Q샘플의 번호를 기입하게 하였다.

<그림 2> Q 분류표



총 34개의 문항을 정규분포의 형태에 가깝게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가장 동의하는 +4의 문항부터 -4의 문항까지 총 34개 문항에 관한 동의의 서열을 얻었다. 표집된 Q분류표를 토대로 PQMethod[5]라는 Q방법론 분석을 위해 개발된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5) 본 통계 프로그램은 무료로 공개된 프로그램이며 검색을 통해 쉽게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 4 장 분석 결과 및 해석

제1절 유형분석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결과 5가지 유형으로 분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유형과 P샘플의 매칭 결과는 (표V-1)과 같다. 이때 PQMethod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유형별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Q분류와 P샘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Principal component 방식을 활용하여 로테이션 이전의 요인가를 추출하였다. 이때 Eigen Value값을 확인한 결과 그 값이 1이상인 요인의 개수를 선택하여 5개를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varimax방식의 로테이션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flagging 작업을 시행하여 최종적인 요인분석표를 획득할 수 있었다.

<표 13> 요인분석표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1	여자	27	미혼/학생	0.4175	0.2476	0.6633*	0.0843	-0.0781
2	여자	28	미혼/학생	0.3185	-0.2666	0.8040*	0.0866	0.0662
3	여자	28	미혼/직장인	0.2480	0.4192	0.6474*	0.2166	0.2052
4	여자	27	미혼/직장인	0.1736	0.2903	0.6878*	0.3322	-0.1843
5	남자	28	미혼/학생	0.7941*	0.2055	0.3870	0.2038	0.0082
6	남자	28	미혼/학생	0.7340*	0.1493	0.3918	0.1526	0.2224
7	남자	28	미혼/직장인	0.6433*	-0.0118	0.6081	0.1034	0.1758
8	남자	28	미혼/직장인	0.2555	0.2095	0.7922*	-0.0146	0.1747

9	남자	58	학부모	0.4851	0.5687*	0.0720	0.1632	0.0758
10	여자	55	학부모	0.2159	0.7312*	0.0260	0.1627	0.1353
11	여자	37	교사	0.2734	0.6327*	0.0278	-0.0451	0.5401
12	여자	40	교사	0.5632	0.4380	0.2071	-0.3856	-0.0017
13	남자	54	교사	0.7873*	0.2185	0.4266	-0.0425	0.0852
14	남자	61	교사	0.4945	0.6390*	0.0879	-0.2056	0.1425
15	여자	35	학부모	0.3377	-0.3022	0.4725	0.2937	0.1551
16	여자	35	학부모	0.6545*	0.2979	0.2047	0.2697	0.2453
17	남자	35	학부모	0.2602	0.0958	0.1840	-0.0452	0.7844*
18	여자	32	미혼/학생	-0.1453	0.6366*	-0.0604	-0.0379	0.5778
19	남자	40	학부모	0.1418	0.5556	0.5825	-0.2587	0.1806
20	여자	32	미혼/직장인	0.8480*	0.0556	0.1830	-0.1332	0.0643
21	남자	35	미혼/직장인	0.0479	0.7994*	0.2929	-0.1400	-0.0795
22	남자	31	미혼/학생	0.0635	-0.0344	0.2619	0.8745*	-0.0692
설명력(%)				22	18	20	7	7

* p < .05 수준

유형1은 미혼/학생 2명, 미혼/직장인 2명, 학부모1명, 교사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력은 28%를 차지한다. 유형2는 학부모 2명과 교사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력은 18%를 차지한다. 유형3은 미혼/학생 2명, 미혼/직장인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력은 20%에 해당한다. 유형4는 미혼/학생 1명, 유형5는 학부모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력은 각각 7%를 차지한다. 이상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된 분석결과 총 74%의 설명력을 지닌다.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14>와 같다. 유형1과 유형3의 상관관계가 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2와4 그리고 유형4와 유형5는 -0.05로 상관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형1과 3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지만, 유형1과 3에서 부패인식에 관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독립된 유형으로 파악하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14> 요인 간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1	1	0.45	0.70	0.20	0.39
2		1	0.35	-0.05	0.36
3			1	0.34	0.34
4				1	-0.05
5					1

다음으로 요인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별 분석은 각각의 진술문들에 대한 서열의 특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즉, 일차적으로 각 요인별 극단값을 가지는 경우를 중심으로 그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Q샘플의 분포의 극단값은 +4,+3,-3,-4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각 유형별 특성은 극단값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 다른 요인가들을 보완하여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Brown, 1986).

각 유형별로 진술문의 요인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V-3>과 같다. +4에서 - 4까지 총34개의 문항이 서열화 되어 있으며, +4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응답자가 선호하고 동의하는 의견이며, -4에 다가갈수록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다.

<표 15> 진술문의 요인가

번호	Q 설 문	1	2	3	4	5
1	선생님께 촌지 등을 통해 감사표시를 하면 내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다른 학생에 비해 관심을 아무래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1	0	1	1	3
2	내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다소 무리하더라도 촌지를 드릴 수 있다.	-4	-1	-4	1	-3
3	우리 아이가 왕따 등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촌지를 적당히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3	-1	-4	1	-4
4	적당한 수준의 촌지를 드리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4	0	-3	-4	-1
5	학생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선생님을 위해 스승의 날에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선물을 주는 것은 좋은 전통이다.	-2	2	0	1	-1
6	박봉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기 보다 존경의 표시이다.	-3	1	-1	-1	-2
7	주변 학부모들 가운데 다수가 선생님께 촌지를 준다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도 촌지를 주게 될 것이다.	-3	0	-2	1	1
8	교육분야에 만연한 촌지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나의 자식도 부당한 피해자가 되기 싫기 때문에 촌지를 줄 것이다.	-2	-2	-2	0	1
9	선생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격무, 박봉)은 선생님들이 촌지의 유혹에 약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0	-2	-1	-1	2
10	교육 및 행정당국의 느슨한 규율은 촌지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	0	-1	2	0	0
11	교육분야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 분야(건설, 교통, 노동 등)보다 부패하다.	-2	-3	0	-1	0
12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는 촌지 관행을 악화시킨다.	1	1	1	2	2
13	3만원 상당의 양말을 사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부패한 행위이다.	-1	-3	-1	2	-3
14	3만원 현금을 선생님께 우리아이를 잘 부탁한다면서 드리는 행위는 부패한 행위이다.	0	-2	1	2	0
15	스승의 날 25명의 부모들이 2만원씩 돈을 모아 "3학년5반 학부모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이다.	-2	-3	0	-2	-1
16	진로상담일에 선생님께 10만원 촌지를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이다.	1	-2	3	2	4
17	딸의 졸업식에 담임선생님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10만원의 상품권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1	2	-3	-2	3

18	아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과거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존경의 마음으로 현금 10만원씩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볼 수 없다.	0	2	-2	-2	2
19	선생님이 학생을 통해 학부모들로부터 3만원씩 기부금을 강제적으로 받아 교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비치한 선생님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	2	1	3	-2	1
20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담임선생님께 4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1	0	-1	-3	-3
21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에 따라 스승을 극진히 모셔야 한다.	1	1	0	-3	-2
22	교육은 학생의 전인적인 인격을 기르는 것이 학습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하다.	3	4	4	-3	4
23	교육 분야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교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0	1	1	0	-4
24	부패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2	2	0	0	3
25	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사회와 국가가 붕괴될 것이다.	3	4	3	0	2
26	부패는 사회의 정의를 심각하게 헤친다.	3	3	4	0	1
27	교육은 과거와 달리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0	-1	-1	1
28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0	-1	-2	-1	-2
29	교육 분야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엄격하고 과감한 처벌이 필요하다.	2	-1	2	4	-1
30	10만 원 이상 촌지를 받은 선생님을 즉각 파면 조치하는 것은 올바르다.	1	-4	1	4	-2
31	우리사회에서 적당히 부패하지 않고서는 남들보다 앞서기가 힘들다.	1	0	0	3	0
32	우리사회는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근절되어 깨끗한 사회가 되었다.	-1	-4	-3	-4	-1
33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부패가 감소되었으나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패가 만연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4	3	2	3	0
34	우리나라 정부는 신뢰할 수 없다.	4	3	2	3	0

제2절 결과해석

1. 유형1 : 사회비판 외부관점

요인분석을 통하여 교육부패, 특히 촌지에 관한 응답자의 인식 유형은 다섯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유형1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재 사회전반에 부패가 상존하고, 이에 정부를 불신하며 교육은 학생의 인격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유형1로 구분된 응답자들의 Q분류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유형 1의 Q 분류표

				9				
			31	10	32			
		29	21	18	17	15		
	22	24	12	23	20	11	7	
34	26	27	30	28	1	8	6	4
33	25	19	16	14	13	5	3	2
4	3	2	1	0	-1	-2	-3	-4

위 분류표에 따르면 유형 1이 가장 동의하는 5개의 문항은 34,33,22,26,25번 문항으로, 우리사회는 아직 부패가 상당히 존재하며 이러한 부패행위는 사회의 정의를 심각하게 해치는 원인으로써 심각할 경우 사회와 국가가 붕괴될 것이라고 보았다. 더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교육은 본질적으로 공부보다 인성을 함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표 16> 유형 1이 동의하는 대표 문항

유형1의 Q 설문 서열		요소별 점수
34	우리나라 정부는 신뢰할 수 없다.	4
33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부패가 감소되었으나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패가 만연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4
22	교육은 학생의 전인적인 인격을 기르는 것이 학습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하다.	3
26	부패는 사회의 정의를 심각하게 헤친다.	3
25	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사회와 국가가 붕괴될 것이다.	3
29	교육 분야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엄격하고 과감한 처벌이 필요하다.	2

또한 유형 1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 부조리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방법인 부패행위, 즉 촌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본 연구결과 중 가장 동의하지 않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 1이 가장 동의하지 않는 의견은 Q설문 2,4,3,6,7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정의나 공공선을 해치는 행위에 일절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표 17> 유형 1이 비동의하는 대표 문항

유형1의 Q 설문 서열		요소별 점수
5	학생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선생님을 위해 스승의 날에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선물을 주는 것은 좋은 전통이다.	-2
7	주변 학부모들 가운데 다수가 선생님께 촌지를 준다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도 촌지를 주게 될 것이다.	-3
6	박봉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기 보다 존경의 표시이다.	-3
3	우리 아이가 왕따 등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촌지를 적당히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3
4	적당한 수준의 촌지를 드리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감	-4

	사의 표시이다.	
2	내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다소 무리하더라도 촌지를 드릴 수 있다.	-4

이러한 점에서 살피건대, 유형 1은 정의나 도덕관념에 충실하지만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일반 시민이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일반시각처럼, 부패행위에 대해 엄격한 인식과 태도를 지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사회비판 외부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 *" 이런 촌지도 부패는 부패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촌지는 부패의 빙산의 일각이다. 청문회에서 늘 문제가 되는 모든 고위공직자의 부정행태들은 물론이고 찬고금, 수고비, 거마비, 금일봉 등 모든 부패가 사회 곳곳에 다양한 이름으로 녹아들어있다. 그렇다고 해서 촌지가 작은부패라는 건 아니다. 이런것부터 철저한 처벌과 확실한 부패인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

> *" 대한민국은 그간 경제발전에 바빠서 다른 모든 것들이 병들어있다. 최소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도덕교과서에 나온대로 행동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라는 것만 하고 하면 안된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다르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청탁하는 부패 등은 실제 국회에서 의원들의 문자메시지나 수첩을 찍은 기자들의 사진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간략하게 예를 든거지만, 이들이 그 청탁을 받고 전화를 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마구 호통을 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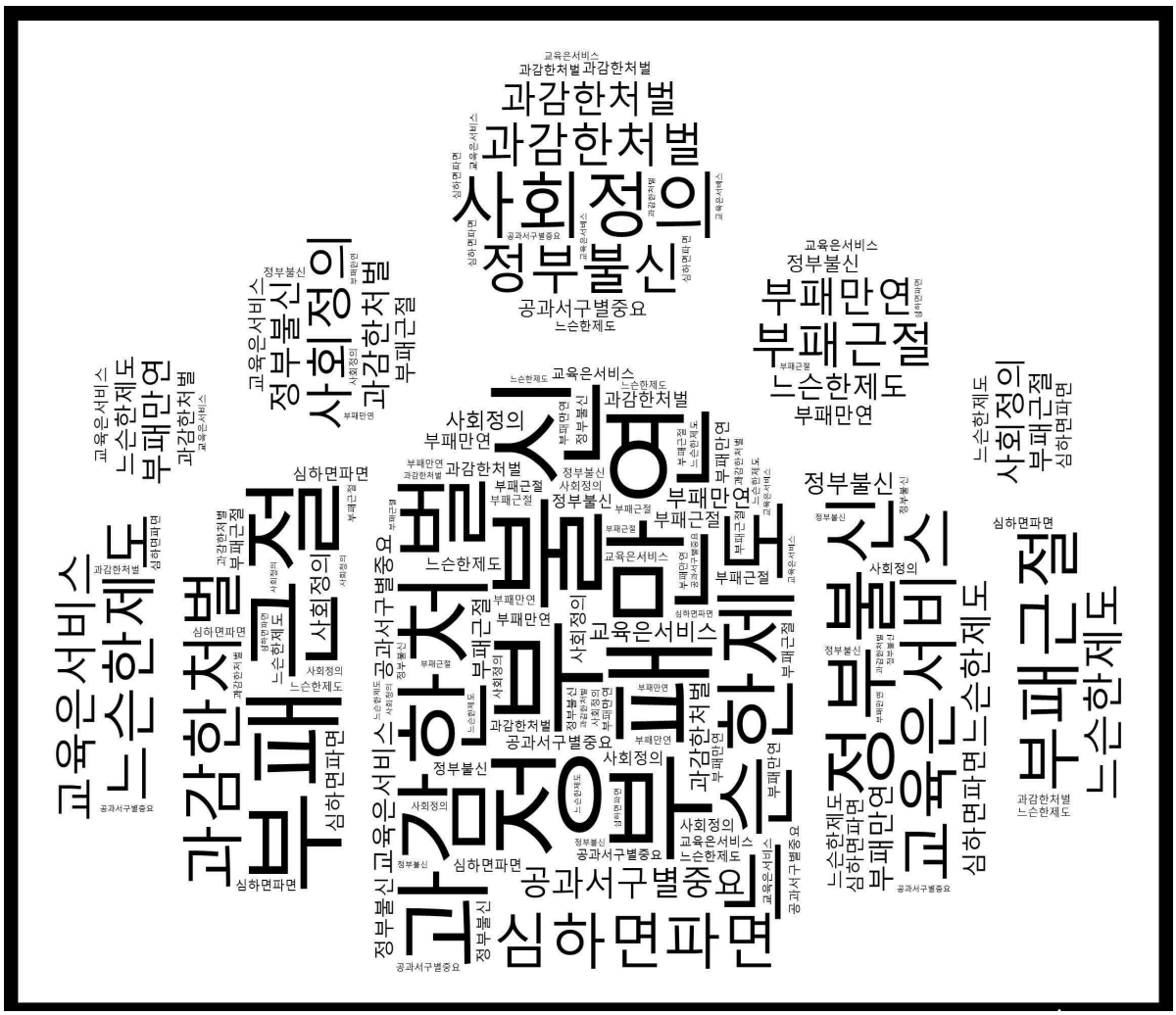
<표 18> 사회비판 외부관점 유형의 부패 분류

유형	Q설문	점수
흑색 부패	선생님이 학생을 통해 학부모들로부터 3만원씩 기부금을 강제적으로 받아 교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비치한 선생님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	3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담임선생님께 4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1
	진로상담일에 선생님께 10만원 촌지를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이다.	1
	딸의 졸업식에 담임선생님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10만원의 상품권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1
회색 부패	3만원 현금을 선생님께 우리아이를 잘 부탁한다면서 드리는 행위는 부패한 행위이다.	0
	아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과거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존경의 마음으로 현금 10만원씩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볼 수 없다.	0
백색 부패	3만원 상당의 양말을 사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부패한 행위이다.	-1
	스승의 날 25명의 부모들이 2만원씩 돈을 모아 "3학년 5반 학부모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이다.	-2

이 유형은 실제 Q설문에 등장하는 8개의 구체적 부패행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8개의 부패행태 가운데 총 4개의 설문에 대해 확고한 흑색부패 행위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3만원 상당의 선물과 공동의 이름으로 현금을 드리는 행위는 부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현금이 아닌 소액의 선물과 사적 이해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공동의 현금은 부패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유형 1, '사회비판 외부관점' 유형으로 나타난 Q분류의 특징과 해당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의 심층 인터뷰를 종합하여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의 형태는 외부관점, 혹은 일반 시민의 시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림 안을 채우고 있는 단어들은 위 유형에 속하는 Q분류의 동의 강도를 반영한 단어와 인터뷰에 등장한 표현들의 빈도, 위 두 가지를 종합하여 산출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그림 4> 사회비판 외부관점



2. 유형2 : 사회비판 내부관점

<그림 5> 유형 2의 Q 분류표

				20				
			19	27	2			
		24	12	1	3	16		
	34	18	21	4	28	8	15	
22	33	17	23	7	10	9	11	30
25	26	5	6	31	29	14	13	32
4	3	2	1	0	-1	-2	-3	-4

유형 2는 가장 동의하는 5개의 문항이 22,25,34,33,26으로, 유형 1과 비교할 때 서열만 다를 뿐 모두 중복된다. 즉 유형 1과 같이 우리사회에 아직까지 부패가 잔존해 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한 경향을 띠고 있다. 또한 부패가 만연할 경우 정의는 훼손되고, 그 결과 사회와 국가가 붕괴될 것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다.

<표 19> 유형 2가 동의하는 대표 문항

Q 설문		요소별 점수
22	교육은 학생의 전인적인 인격을 기르는 것이 학습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하다.	4
25	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사회와 국가가 붕괴될 것이다.	4
34	우리나라 정부는 신뢰할 수 없다.	3
33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부패가 감소되었으나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패가 만연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3
26	부패는 사회의 정의를 심각하게 헤친다.	3
24	부패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2

그러나 유형2의 경우 가장 동의하지 않는 문항에서 유형 1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유형2의 경우 우리 사회에 대해 부패가 근절된 깨끗한 사회는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유독 교육 분야가 심각하게 부패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교육청 가이드라인의 상한선인 3만 원 정도의 현금이나 같은 가격의 선물 모두 용인될 정도의 백색부패라고 응답했다. 이는 다른 유형의 응답자들이 대부분 '3만원 상당의' 선물은 용인될 수 있지만, 같은 금액인 현금성 물품이나 현금 자체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것과 다른 점이다. 더하여 유형 2는 학부모들이 2만원 상당의 소액의 돈을 십시일반 모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부패가 아니라고 분류하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설령 교사가 10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았다하더라도 파면이라는 징계는 매우 지나치다고 보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0> 유형 2가 비동의하는 대표 문항

Q 설문		요소별 점수
14	3만원 현금을 선생님께 우리아이를 잘 부탁한다면서 드리는 행위는 부패한 행위이다.	-2
15	스승의 날 25명의 부모들이 2만원씩 돈을 모아 "3학년5반 학부모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이다.	-3
11	교육분야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 분야(건설, 교통, 노동 등)보다 부패하다.	-3
13	3만원 상당의 양말을 사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부패한 행위이다.	-3
30	10만 원 이상 촌지를 받은 선생님을 즉각 파면 조치하는 것은 올바르다.	-4
32	우리사회는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근절되어 깨끗한 사회가 되었다.	-4

다시 말하면, 유형 2는 일반 사회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생

각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법한 부패행태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나아가 지나친 처벌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곧 실제 교육현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내부에 속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입장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유형 2로 분류된 P샘플을 확인한 결과 교사 2명, 학부모 2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2유형은 "사회비판 내부관점"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 *"학부모들과 상담을 할 때 롤케이크라든지 쿠키셋트, 직접 담근 과일차 등 간식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오신다. 이런 간식들은 보통 이만원에서 삼만원을 넘나드는데 누가 봐도 대가성 촌지라고 생각하지 않을법한 것들이다. 학부모입장에서도 자녀에 대해 상담하러 오는데 빈손으로 오기가 멋쩍어서 가져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끔 목욕용품이나 방향제, 화장품들을 가져오시기도 하는데 부담스러운 금액같이 보이면 받지 않는다."*

> *"선생님들은 먹을거리를 받으면 대부분 교무실에 가져와서 동료선생님들과 나누어 먹는다. 20년 넘게 교단에 서면서 소액이라 할 수 있는 선물에 특별한 편애를 부탁받은 적 없고, 설령 학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학생을 편애한 적도 없다. 대가성 촌지라면 2000년대 들어서는 현금20만원 한분, 상품권 50만 원가량 한분, 그리고 어떻게 집주소를 아셨는지 고가의 과일바구니를 보내 주신 적 있으나 세 분 모두 돌려드렸다. 교육청 공문도 그렇고 교사들이 정성이나 성의를 감사해하던 예전과 달리 학부모들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촌지를 멀리하는 경우가 많다."*

<표 21>은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유형 2로 분류된 응답자들이 Q설문에 포함된 8개의 구체적 부패행태를 3가지로 분류한 결과이다. 유형 2의 응답자들은 과반수가 넘는 6개의 부패행태에 대해 백색부패의 수준이라고 분류했다. 특이점은 학부모의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2만원, 3만원, 10만원 등 액수와 관계없이 용인할 수 있다고 답한 점이다. 부패 분류 중 흑색부패로 분류한 1개의 문항이 바로 교사가 강제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기부를 종용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표 21> 사회비판 내부관점의 부패 분류

유형	Q설문	점수
흑색 부패	선생님이 학생을 통해 학부모들로부터 3만원씩 기부금을 강제적으로 받아 교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비치한 선생님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	1
회색 부패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담임선생님께 4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0
백색 부패	아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과거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존경의 마음으로 현금 10만원씩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딸의 졸업식에 담임선생님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10만원의 상품권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2
	진로상담일에 선생님께 10만원 촌지를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이다.	-2
	3만원 현금을 선생님께 우리아이를 잘 부탁한다면서 드리는 행위는 부패한 행위이다.	-2
	스승의 날 25명의 부모들이 2만원씩 돈을 모아 "3학년5반 학부모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이다.	-3
	3만원 상당의 양말을 사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부패한 행위이다.	-3

또한 <표 21>의 부패분류에 따르면 회색부패로 분류한 부패행위는 4만원 상당의 케이크에 대한 항목이었다. 10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 대부분 백색부패로 분류한 반면, 이 항목만 백색부패와 달리 분류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답을 들을 수 있었다.

> *“ 교사입장에서 말하자면 진로상담같은 학부모와 면대면의 만남에서 받는 선물은 현금이나 상품권이 아닌 경우 일선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카카오톡 같은 개인매체로 선물을 받는 것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꺼림칙한 면이 없지 않다. ”*

> *“ 솔직히 학교에 가서도 4만원 정도 하는 목욕용품셋트를 드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비슷하게 드린 적이 있다. 카페에서 쓸 수 있는 2~5만원 짜리 충전카드 기프트콘을 두어 번 보냈었다. 개인적으로는 몇 십 혹은 몇 백 만원 단위 같은 큰 액수 말고는 촌지라고 볼 수 없는 것 같고, 특히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뭘 줘도 잘 안 받으려 한다. 그러니 가끔 이렇게 성의표시를 하면서 학부모로서 나름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선생님께 자각(?)시켜드리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엄마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내가 선물을 했다는 증거니까 일종의 보험이랄까...(중략). ”*

이제까지 살펴본 유형 2, ‘사회비판 내부관점’ 유형으로 나타난 Q분류의 특징과 해당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의 심층 인터뷰를 종합하여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의 형태는 내부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림 안을 채우고 있는 단어들은 위 유형에 속하는 Q분류의 동의강도를 반영한 단어와 인터뷰에 등장한 표현들의 빈도, 위 두 가지를 종

합하여 산출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그림 6> 사회비판 내부관점

3. 유형3 : 엄격한 윤리주의 관점

<그림 7> 유형 3의 Q 분류표

				15				
			23	24	20			
		29	12	21	6	8		
	16	34	30	11	9	7	32	
22	19	33	1	5	27	28	17	3
26	25	10	14	31	13	18	4	2
4	3	2	1	0	-1	-2	-3	-4

유형 3이 가장 동의하는 Q진술문은 교육은 학생의 전인적인 인격을 기르는 데 있다는 것으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지지한다. 또한 촌지를 지급하는 문항에 대해 다른 유형들보다 적극적으로 부패행위임을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유형 1, 유형 2와 마찬가지로 부패의 해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표 22> 유형 3이 동의하는 대표 문항

유형3의 Q 설문 서열		요소별 점수
22	교육은 학생의 전인적인 인격을 기르는 것이 학습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하다.	4
26	부패는 사회의 정의를 심각하게 헤친다.	4
16	진로상담일에 선생님께 10만원 촌지를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이다.	3
19	선생님이 학생을 통해 학부모들로부터 3만원씩 기부금을 강제적으로 받아 교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비치한 선생님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	3
25	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사회와 국가가 붕괴될 것이다.	3

29	교육 분야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엄격하고 과감한 처벌이 필요하다.	2

반면 유형3이 가장 동의하지 않는 5개의 문항 중 2개 문항은 부패를 통해 자신의 사적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자신의 자식이 상대적으로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면 촌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왕따를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촌지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표 23> 유형 3이 비동의하는 대표 문항

Q 설문		요소별 점수
18	아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과거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존경의 마음으로 현금 10만원씩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32	우리사회는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근절되어 깨끗한 사회가 되었다.	-3
17	딸의 졸업식에 담임선생님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10만원의 상품권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3
4	적당한 수준의 촌지를 드리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3
3	우리 아이가 왕따 등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촌지를 적당히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4
2	내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다소 무리하더라도 촌지를 드릴 수 있다.	-4

한편 촌지를 지급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유형 3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즉, 진술문 4를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촌지 행위자체에 대해 엄격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유형3은 이해관계가 느슨해지는 딸의 졸업식에서 이르러 촌지를 10만원 상당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짐작컨대, 유형3은 교육의 전인격적인 측면과 촌지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엄격한 윤리주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유형3이 나타내는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의 태도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총8개의 부패행위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면 6개가 부패행위라고 생각하는 반면 1개만이 애매모호한 행위라고 생각하며, 나머지 하나는 부패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한다. 또한 부패행위라고 생각하는 요인가의 절대값의 합은 13으로 다른 4유형과 더불어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4> 엄격한 윤리주의 관점 유형의 부패 분류

유형	Q설문	점수
흑색 부패	진로상담일에 선생님께 10만원 촌지를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이다.	3
	선생님이 학생을 통해 학부모들로부터 3만원씩 기부금을 강제적으로 받아 교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비치한 선생님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	3
	딸의 졸업식에 담임선생님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10만원의 상품권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3
	아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과거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존경의 마음으로 현금 10만원씩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3만원 현금을 선생님께 우리아이를 잘 부탁한다면서 드리는 행위는 부패한 행위이다.	1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담임선생님께 4만원 상당의	-1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회색 부패	스승의 날 25명의 부모들이 2만원씩 돈을 모아 "3학년5반 학부모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이다.	0
백색 부패	3만원 상당의 양말을 사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부패한 행위이다.	-1

윤리적으로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유형 3의 부패분류의 특이점은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소액의 돈(1인당 2만원)을 모아 선생님께 드리는 것이 부패인지 아닌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분석결과를 반영한 유형 3의 입장에서 볼 때, 소액의 공동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사회의 정의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흑색부패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동시에 소액임에도 현금자체를 학부모가 선생님께 드리는 행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백색부패에도 분류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유형 3의 응답자들은 윤리적으로 엄격한 입장을 지니고 있지만 3만원 정도의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소액이라는 점, 현금이 아닌 물건이라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 보았다.

> *" 각자 2만원씩 모아서 선생님께 드리는 행위 항목을 회색부패로 분류한 이유라면.. 일단 다 같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전체 아이들 중 특정학생이 편애로 이익을 보는 게 없고, 또 그 편애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손해를 보는 아이가 없다는 점에서 막 처벌받아야 하는 흑색부패까진 아닌 것 같아 회색부패로 분류한 것이다. 물론 회색부패로 분류한 것은 이게 현금이라는 사실 때문에 백색부패에는 절대 해당되지*

않았던 점도 있다. ”

“ 교육자들은 특히 직업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과의 관계에서 오는 보람이나 학생의 성장을 도와주고 지켜보는 데서 직업적 성취감을 느껴야 한다. 교사의 윤리의식을 제대로 체화한 선생님이라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졸업 이후 찾아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보람찰 것이라 생각한다. 선생님들은 학생이 공부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잘되든 본인 기준에 못되든(?)간에 졸업이후 찾아오는 모든 학생들이 반갑다. 그것만한 감사의 표시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졸업 이후의 모든 금전적 부패행태도 마찬가지로 흑색으로 분류했다. ”

“ 양말을 백색부패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이 항목을 보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애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무언가를 받는 행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양말은 부패와 매치하기엔 멀어도 좀 많이 먼 물품 아닌가. ”

이제까지 다룬 유형 3, ‘사회비판 내부관점’ 유형으로 나타난 Q분류의 특징과 해당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의 심층 인터뷰를 종합하여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의 형태는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상징하는 십자가이다. 그림 안의 단어들은 유형 3에 속하는 Q분류의 동의 강도를 반영한 단어와 인터뷰에 등장한 표현들의 빈도를 종합하여 산출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그림 8> 엄격한 윤리주의 관점

4. 유형4 : 엄격한 법치주의 관점

<그림 9> 유형 4의 Q 분류표

				23				
			7	24	9			
		12	1	25	27	18		
	31	13	2	26	28	15	22	
29	33	14	3	10	11	17	21	4
30	34	16	5	8	6	19	20	32
4	3	2	1	0	-1	-2	-3	-4

유형 4가 가장 동의하는 5개의 문장을 살펴보면 부패행위에 대해 현재보다 엄격하고 과감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2개의 문항,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는 부패가 만연하여 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적당히 부패하지 않고서는 남들보다 앞서기 힘들다는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형 4는 엄격한 법과 제도를 통해 현재 우리사회의 부패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 25> 유형 4가 동의하는 대표 문항

Q 설문		요소별 점수
29	교육 분야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엄격하고 과감한 처벌이 필요하다.	4
30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선생님을 즉각 파면 조치하는 것은 올바르다.	4
31	우리사회에서 적당히 부패하지 않고서는 남들보다 앞서기가 힘들다.	3
33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부패가 감소되었으나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패가 만연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3
34	우리나라 정부는 신뢰할 수 없다.	3

12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는 촌지 관행을 악화시킨다.	2

또한 유형4가 가장 동의하지 않는 Q진술문은 [표 26]과 같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부패근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교육의 목표로 학습능력보다도 전인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형 4의 특징으로는 군사부일체라는 유교적 생각을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에 있어서 전인적 요소가 중시되어야 하지만 과거와 같은 권위적 질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징계와 처벌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유형4는 “엄격한 법치주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6> 유형 4가 비동의하는 대표 문항

유형4의 Q 설문 서열		요소별 점수
19	선생님이 학생을 통해 학부모들로부터 3만원씩 기부금을 강제적으로 받아 교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비치한 선생님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	-2
22	교육은 학생의 전인적인 인격을 기르는 것이 학습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하다.	-3
21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에 따라 스승을 극진히 모셔야 한다.	-3
20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담임선생님께 4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3
4	적당한 수준의 촌지를 드리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4
32	우리사회는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근절되어 깨끗한 사회가 되었다.	-4

이 엄격한 법치주의적 관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Q설문 중 부패행위 분류에 있어 어느 유형보다도 엄격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분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개의 Q진술문에 포함된 총 8개의 부패행태 가운데 명백한 흑색부패행위라고 생각하는 문항은 6개에 해당했으며, 그 절대값의 합은 13으로 유형 3과 더불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부패분류결과는 [표 27]과 같다. 특이점으로는 유형 3이 '학부모들이 소액의 공동 모금을 통해 선생님에 대한 현금 전달'을 회색부패로 분류한 반면, 유형 4는 위 행태를 용인할 수 있는 부패, 즉 백색부패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금 전달이 특정한 개인이 사적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바탕으로, 실제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명시하여 학교전체와 학생들을 위한 모금을 시행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들어 부패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모금을 하더라도 그것이 학급전체를 위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27> 엄격한 법치주의관점 유형의 부패 분류

유형	Q설문	점수
흑색 부패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담임선생님께 4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3
	3만원 상당의 양말을 사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부패한 행위이다.	2
	3만원 현금을 선생님께 우리아이를 잘 부탁한다면서 드리는 행위는 부패한 행위이다.	2
	진로상담일에 선생님께 10만원 촌지를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이다.	2
	아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과거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존경의 마음으로 현금 10만원씩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딸의 졸업식에 담임선생님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	-2

	고 10만원의 상품권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흰색 부패	스승의 날 25명의 부모들이 2만원씩 돈을 모아 "3학년5반 학부모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이다.	-2
	선생님이 학생을 통해 학부모들로부터 3만원씩 기부금을 강제적으로 받아 교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비치한 선생님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	-2

또한 본 연구결과로 나타난 다섯 가지 유형 중 유일하게 회색부패로 분류한 부패행위가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 역시 유형 4의 특징이다. 이는 앞서 유형 4를 분석한 결과 명명한 '엄격한 법치주의'의 관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명백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분류한 흑색부패가 8개 문항 중 과반이 넘는 6개를 차지하였다. 이 중 졸업여부와 관련 없이 현금성 촌지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두 문항은 유형 3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유형 4도 교사의 본분에 충실하여 공과사를 구별해야한다는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한국사회의 병폐는 이중성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절차와 규칙을 무시하고 학연지연혈연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본인의 상황에서는 이를 활용하며 특권의식을 갖는다. 심지어 자랑도 한다.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생각한다. 뉴스에 적발된 입시비리, 청탁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아이의 자존감과 미래를 위해서 선생님에게 양주한 병, 상품권 몇 장쯤 드리는 건 남들하는 만큼 하는 인사라고 여겨왔다.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로 처벌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인간의 본성은 선함과 악함 두 가지 모두 있기 때문에 파면이라는 처벌을 통해 미연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면 이것도 나*

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

“ 교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립과 공립 가리지 않고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것처럼, 교사가 촌지를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것과 진배없다. 십 여 년 전부터 공교육이 붕괴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애매하다면 애매한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강력히 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교육계의 위상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략.) .. 교사들은 파면처벌을 두고 자존심 상해할 것이 아니라,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한마디로 교사전체의 명예를 흐리는 미꾸라지들을 제어하기 위한 방지책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촌지를 준 학부모가 증거자료를 모아놨다가 편애를 해주는 느낌이 들지 않자 신고하여 파면당한 사례가 있다. 나는 이걸 공문에서 사례로 접했는데 이후 학부모가 가져오는 간식 하나하나에도 그 생각이 나서 조심하게 된다. 이처럼 남의 처벌을 반면교사로 삼은 내 경험 덕분에 강력한 처벌의 효과는 확실하다고 믿고 있다. ”

유형 4, ‘엄격한 법치주의’ 유형으로 나타난 Q분류의 특징과 해당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의 심층 인터뷰를 종합하여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의 형태는 엄격한 제도, 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림 안의 단어들은 유형 4에 속하는 Q분류의 동의 강도를 반영한 단어와 인터뷰에 등장한 표현들의 빈도를 종합하여 산출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그림 10> 엄격한 법치주의 관점

5. 유형5 : 양심적 현실주의 관점

<그림 11> 유형 5의 Q 분류표

				11				
			7	10	5			
		9	8	14	4	28		
	1	12	19	31	29	30	2	
16	17	18	26	33	15	21	13	3
22	24	25	27	34	32	6	20	23
4	3	2	1	0	-1	-2	-3	-4

유형 5는 앞선 네 가지 유형들과는 판단기준 자체에 다른 점을 보인다. 가장 큰 특징은 유형 1과 유형 2가 공통적으로 사회나 국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유형 3과 유형 4가 때와 장소에 불문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시적 안목과 다르다는 점이다. 유형 5는 부패 현상에 대해 지극히 현실적 판단기준으로 동의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유형 5가 가장 동의하는 문장은 [표 28]와 같다.

<표 28> 유형 5가 동의하는 대표 문항

Q 설문		요소별 점수
16	진로상담일에 선생님께 10만원 촌지를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이다.	4
22	교육은 학생의 전인적인 인격을 기르는 것이 학습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하다.	4
1	선생님께 촌지 등을 통해 감사표시를 하면 내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다른 학생에 비해 관심을 아무래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3
17	딸의 졸업식에 담임선생님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10만원의 상품권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3

24	부패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3
9	선생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격무, 박봉)은 선생님들이 촌지의 유혹에 약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2

먼저 이해관계 있는 담임선생님께 10만원의 현금을 주는 것이 부패행위라는 것에 가장 크게 동의하고 있다. 또한 촌지의 효과로 선생님이 본인의 자녀를 잘 돌보아 줄 것이고 생각하고, 부패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문항에 동의하면서 이 상황들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유형 5가 가장 동의하지 않는 문장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더 나은 차별적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 자신이 부패한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양심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부패를 다루는데 교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현실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부패 행태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표 29> 유형 5가 비동의하는 대표 문항

Q 설문		요소별 점수
6	박봉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기 보다 존경의 표시이다.	-2
2	내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다소 무리하더라도 촌지를 드릴 수 있다.	-3
13	3만원 상당의 양말을 사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부패한 행위이다.	-3
20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담임선생님께 4만원 상당의	-3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3	우리 아이가 왕따 등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촌지를 적당히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4
23	교육 분야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교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 5는 위 동의 정도와 다르게 8개의 구체적인 부패행태를 구분하는 설문에는 다소 관대한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소액이거나 소액에 해당하는 선물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의 촌지행위에 한해서 부패가 아니라고 분류하였다.

<표 30> 양심적 현실주의관점 유형의 부패 분류

유형	Q설문	점수
흑색 부패	진로상담일에 선생님께 10만원 촌지를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이다.	4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담임선생님께 4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3
	선생님이 학생을 통해 학부모들로부터 3만원씩 기부금을 강제적으로 받아 교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비치한 선생님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	1
회색 부패	3만원 현금을 선생님께 우리아이를 잘 부탁한다면서 드리는 행위는 부패한 행위이다.	0
흰색 부패	딸의 졸업식에 담임선생님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10만원의 상품권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3
	3만원 상당의 양말을 사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부패한 행위이다.	-3

	아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과거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존경의 마음으로 현금 10만원씩을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스승의 날 25명의 부모들이 2만원씩 돈을 모아 "3학년5반 학부모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부패행위이다.	-1

즉 유형 5는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되, 자신은 부패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에 가까우며 이를 "양심적 현실주의' 관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데 부패하지 않은 행위, 흰색부패라고 분류한 항목이 과반수인 4개이고, 그 절대값의 합이 9점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 진로상담일에 10만원을 준 행태를 부패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를 앞으로 잘 봐달라고 직접적으로 청탁하는 행위, 말하자면 10만원으로 선생님의 편의를 부당하게 산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금액이지만 졸업식날 주는 10만원이 부패가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미래에 대한 대가성이 없는, 선생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 동안 신세진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랄까. "*

유형 5는 강제성이 강한 행위인 경우에는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동일한 3만원이라 하더라도 선물을 주는 행위는 부패가 아니라고 생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3만원을 주는 행위는 애매모호한 부패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또한 인터뷰를 통해 들어볼 수 있었다.

“ 3만원씩 강제적으로 할당하여 돈을 걷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에게 현금성 물품을 주는 것보다야 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학부모들한테는 3만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말 같은 거는 선생님이 실제로 그걸 받아서 큰 신세를 졌다고 생각안하고 그냥 편하게 신으실 것 같은데, 현금 3만원은 어찌 보면 좀 큰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회색부패로 분류했다”

이를 토대로 유형 5, ‘양심적 현실주의’ 유형으로 나타난 Q분류의 특징과 해당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의 심층 인터뷰를 종합하여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의 형태는 양심적 맹세를 뜻하는 손바닥의 모습으로 유형 5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림 안의 단어들은 유형 5에 속하는 Q분류의 동의 강도를 반영한 단어와 인터뷰에 등장한 표현들의 빈도를 종합하여 산출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그림 12> 양심적 현실주의 관점

제3절 각 유형 별 분석 종합

지금까지 교육부패, 특히 촌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교육부패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 인식유형을 파악하여 보았다. Q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5개의 인식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개의 인식유형은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특성이 특정한 부패행동에 대하여 이것이 부패인지 아닌지에 판단에 다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 개의 인식유형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면 <표6-1>과 같다. 유형 1과 유형 2인 사회비판 외부관점, 사회비판 내부관점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문항과 가장 선호하지 않는 문항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부패행위에 대한 부패분류에서 큰 차이가 존재했다. 부패분류를 행한 두 유형에 해당하는 P샘플들의 특성을 미루어볼 때, 내부관점과 외부관점에 따라 실제 부패행위에 대한 판단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내부관점에는 비단 실제 교육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뿐 아니라 촌지부패의 공급자인 학부모의 입장 또한 내부관점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인 엄격한 윤리주의 관점은 부패 문제를 인간의 이기적 욕망과 욕심으로 본다는 점에서 1,2유형과 구별된다. 윤리적 입장에서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이 관점은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도 엄격한 잣대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엄격한 윤리주의 관점에서 회색 또는 백색 부패라고 보는 부패 행동은 공동의 현금 전달로 개인의 사익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거나 소액의 선물이기에 받는 사람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행위였다.

제4유형인 엄격한 법치주의 관점은 부패행동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사소한 부패라도 크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과 규제를 강화하여 부패를 통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부패판단에 대해서도 매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8개의 부패예시 중 2개의 설문을 제외한 모든 행태를 처벌해야 할 흑색 부패행위라고 판

단하였다. 이 유형이 부패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두 개의 부패행태는 모두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제5유형인 양심적 현실주의 관점은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사회나 제도, 정부에 대한 거시적 의견 보다는 교육문제에 대해 외부나 내부관점이 아닌, 양심적 판단을 기준으로 Q설문이 결정되었다. 위 유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응답자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부패행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패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한편, 용인될 수준을 넘어선 심한 행위에 대해서만 부패라고 생각하는 현실 수용적 관점을 추출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설명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추출된 인식유형 종합

유형	특 성	부패판단(개수)		
		흑색	회색	백색
1.사회비판 외부관점	• 사회전반에 부패가 만연, 정부불신 경향 • 부패 판단에 엄격 • 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를 옹호 • 부패를 보는 일반 시각과 유사	4	2	2
2.사회비판 내부관점	• 사회전반에 부패가 만연, 정부불신 경향 • 촌지부패 판단에 매우 관대한 경향 • 촌지 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비동의	1	1	6
3.엄격한 윤리주의 관점	• 부패문제를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환경의 문제로 이해함 • 부패를 통한 사적이익에 반대 • 부패 판단에 소속에 상관없이 매우 엄격	6	1	1
4.엄격한 법치주의 관점	• 부패문제를 규제와 처벌로 해결 지향 • 유교적 질서에 반대 (지위와 상황에 관계없는 동등한 처벌 적용 선호) • 부패 판단에 가장 엄격	6	0	2
5.양심적 현실주의 관점	• 부패문제에 대해 현실적 기준으로 판단 • 사적 이익을 위한 부패행위에는 응답자본인이 내부인, 외부인 관계없이 양심적으로 반대함 • 소액 부패행위 판단에 관대한 경향	3	1	4

이상 교육부패 중 촌지행위 부패에 관한 인식유형은 [표 31]과 같이 총 다섯 가지로 추출되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패에 대한 인식유형이라는 연구목적과 더불어, 도출된 유형별로 부패에 대한 수용도 차이 또한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 설계 단계에서 34개의 Q설문항에 8개의 구체적 부패행위를 포함하였다. 8개의 구체적 부패행위에 3만원, 5만원, 10만원 등 현금성 가액 예시는 각 시도교육청 가이드(백서)자료와 공무원윤리강령, 실제 촌지부패를 다룬 교육부의 사례집, 사건적발로 보도된 기사 내용에서 추출하였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Q방법론의 연구절차에 따라 응답자들이 Q분류를 완료 한 후, 설문에 포함하였던 8개의 부패행태에 대해서 따로 흑색부패, 회색부패, 백색부패로의 정확한 분류를 다시 요청하였다. 이 내용을 흑색, 회색, 흰색부패의 판단개수로 [표 18], [표 21], [표 24], [표 27], [표30]으로 정리해 본문에 추가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종합한 본 장에서의 [표 31]에도 부패판단 개수로 정리하였다. 더하여 부패분류에서 특이한 내용은 응답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류한 이유까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위 작업을 통해 도출된 '유형별 회색부패 수용 차이정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림 13> 회색부패에 대한 수용도

<table>
<tr><td>매우엄격함</td><td>엄격함</td><td>관대한 경향</td><td>매우관대함</td></tr>
<tr><td>엄격한 윤리주의
엄격한 법치주의</td><td>사회비판
외부형</td><td>양심적
현실주의</td><td>사회비판
내부형</td></tr>
</table>

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패행위의 인식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개인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교육부패에 대한 Q설문을 분류하고, 그 중 8개의 구체적 촌지행위에 대해 부패행위인지 아닌지를 구분케 하였다. 그 결과 부패를 보는 5개의 인식유형을 도출하였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부패 판단이 상이한 점, 그리고 유형에 따라 회색부패에 대한 수용의 정도가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Q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유형 1과 유형 2에서 다수의 기존 연구결과와 같이 내부자일수록 부패용인 정도가 높고, 외부자일수록 부패용인 정도가 낮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패의 영향요인을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들이 연구 설계부터 내부자 여부를 구분하여 흑백으로 적용하였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유형 3과 4, 그리고 5에는 내부자와 외부자가 섞여있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즉, 응답자 본인이 교원인지 아닌지 여부에 상관없이 엄격한 윤리(유형 3)나 법치주의적 가치관(유형 4), 혹은 양심적 기준(유형 5)에 따라 부패행위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 따르면 부패행위의 내부자임에도 회색부패 행태를 소액일지라도 절대 용인하지 않기도 하고, 유형 5처럼 외부자임에도 현실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부패행위에 대해 관대한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말은 곧, 부패속성을 규정짓는 것이 소속여부보다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가치관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기존의 부패정책이 주로 개인의 소속이나 신상명세에 부패요인을 두고 그 속성에 집중해 정책을 설계한 것과 달리, 제도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진행한 결과, 엄격한 법치주의 관점의 유형 4는 정

부와 국회가 마련한 법과 제도에 따라 부패를 매우 엄격하게 대면하고, 엄격한 윤리주의관점의 유형은 해당 사회가 추구하는 윤리적 기준에 발맞추어 부패를 비교적 단호하게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사회의 윤리는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전체의 문화와 연관이 깊고, 이 문화를 축적하는 주체는 개개인의 행동양식과 가치관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인 양심적 현실주의자 관점, 유형 5 또한 외부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부패상황을 수용하는 듯 보이지만 내면의 양심적 가치를 토대로 스스로 부패행태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에 대한 인식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부패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융통성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법의 문제, 현실적 문제로 파악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졌다는 점에 일단의 의의가 있다.

둘째, 실제 부패 행태에 대한 흑색, 회색, 백색부패 판단은 부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동일한 행동이 부패로 인식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아닌 행동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익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닐수록, 금액이 적을수록, 이해관계가 없을수록, 현금이 아닌 선물일수록 부패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패에 대한 판단은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여전히 내부자냐 외부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는 점이다. 일반부패에 대한 인식 유형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실제 부패사례를 판단할 때는 내부자냐 외부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여전히 행위자의 소속이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넷째, 회색부패의 성격을 띠면 실제 부패행위는 다양하게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설계 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부패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다양한 부패행위에 대해 당국의 혼선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5년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부패적발 기준인 3만원을 촌지 부패처벌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현금성 선물(현금, 상품권)만 포함시킬 것인지, 현금에 상응하는 선물(3만원 상당의 간식, 음료 등 일체)까지 모두 포함시킬 것인지 명확한 명시가 필요하다. 여기에 현재 3만원 규정이 20년 뒤의 3만원의 의미와 다르기 때문에 현금의 시간적 가치의 반영도 필요하다. 3만원 상당의 교환이 가능한 바코드나 직접 만들어서 시장가격을 알 수 없는 선물, 규정을 피한 3만원 미만 현금의 모금행위 등 회색부패 성격을 가진 경계가 모호한 사례들이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패판단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패에 대한 인식과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준들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부패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부패에서 촌지는 대한민국 학부모의 교육열과 인사나 예의문화, 그리고 제도가 맞물려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유동하는 특이한 사례라는 점이다. 부패는 개발도상국 시절 윤활유효과로 그 효과를 일부 인정해주기도 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산업 각 분야에서 청탁과 리베이트 등 부패행위 근절을 목표로 하는 투명한 공개경쟁지향 시대로 들어섰다.

교육분야 촌지부패는 개도국시절 효율성을 위한 순기능과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른 분야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만든 <표 6> , '교육부패 유인 매트릭스'에서 언급하였듯이, 촌지행위가 일어나는 데에는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 또한 내부 행위자이기 때문에 교사의 직업윤리에 맡기기에는 발생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촌지부패의 공급자인 학부모 또한 교사에 대한 처벌과 같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촌지를 안 받고도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만 주는 수많은 윤리적인 교사들이 존재하는 반면, 촌지 부패행위 공급자인 학부모의 공급시도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촌지를 받는 교사들이 없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교사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면 교단에 서는 교사전체에 대한 위상을 추락시킬 뿐 아니라 촌지를 안 받는 다른 교사들도 유인될 일말의 가능성을 들어 적절한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이다.

또한 촌지행위 공급자인 학부모에게 촌지로 인한 수혜가 보장되지 않는 교육문화와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부패수요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촌지공급자인 학부모에게도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처벌과 징계가 만능열쇠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학부모의 자식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아 치맛바람, 부녀회, 서포트, 찬조금 등 특정 형태로 발현, 고착되어 사회현상으로 치닫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촌지행위는 수혜를 받는 학생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다른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공명정대한 교육기관의 목적에 합치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아닌 사립학교까지 적용 가능한 법조항으로 처벌을 규정하여 촌지에 대한 유인을 원천 봉쇄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이는 곧 본 연구에서 도출된 유형1과 유형3, 유형4, 즉 사회비판 외부관점과 엄격한 법치주의, 엄격한 윤리주의 유형의 볼륨을 확대시켜 장기적으로는 '촌지 안 주고 안 받는 문화'를 구축하여 추락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촌지부패를 일삼는 교사에 대한 법적처벌조항은 교사를 잠재적 범법자라든지 교사를 심판 대상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벌에 대한 부분은 교사를 규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보통의 윤

리적 다수의 교사들의 명예와 위상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바는, 궁극적으로는 처벌조항이라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넘어서, 제도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훗날 강제적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때까지 울타리를 마련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결국 학부모와 교사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회전체에 학부모 또한 교육 부패행위의 범법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교사의 일탈을 미연에 방지하며, 정성과 인사문화라는 명목 하에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애매한 회색부패를 몸소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를 중요시 여기는 개인들이 늘고 있다. 부패로 인한 이러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회색부패를 조명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회색부패에서 흰색부패로, 회색부패에서 흑색부패로 인식 변화를 통해 사회의 수많은 회색부패 감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방법론상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인식 유형 분류와 부패에 대한 판단을 연구하면서 교육수준이나 소득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과의 연관성에 대해 양적연구에 상응하는 정밀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인식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Q연구방법론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 유형 1과 유형 2에서 각각 외부자와 내부자의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자'나 '내부자' 로 명명하지 않고 '외부관점' 과 '내부관점' 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향후 교육분야 회색부패에 대해서 보다 많은 데이터의 수집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고길곤・조수연. (2012). 관행수용도와 부패 : 시민의 관행수용도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46(3), 213-239.

권해수. (2003).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와 시민 단체 간 역할체계 정립방안.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세미나 발표논문집」, pp.145-170.

김성호. (2003).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체계와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자료집」.

김순은·윤상오. (2001). 정보화사업 평가기준 도출에 관한 연구-Q방법론을 사용하여. 「지방정부연구」, 5(4) :207-226.

김순은. (2007). 「Q방법론과 사회과학」. 부산: 도서출판 금정.

김순은. (2010). Q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1-25.

김영종. (1993). 「부패문화의 개혁정책」. 한국행정연구원.

김채환. (1998). 한국언론의 촌지구조에 대한 연구. 「언론연구」, 7(1) : 127-144.

김 택. (1997). 21세기 한국사회를 위한 부패방지의 종합적 처방: 한국사회의 부패유착과 구조. 「한국부패학회」, 4(1): 26-46.

김한창. (2009a). 조직민주화 척도로써 부패영향평가 기준의 활용: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2): 327-343.

_____. (2009b). 반부패 자율시책평가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9(3): 103-121.

김해동. (1991). 「체제부패와 공공정책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_____. (1992). 부패의 작용. 「한국행정논총」, 30(2): 117-134.
김현미. (1997). 인간의 행위와 공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Pierre Bourdieu의 아비투스 개념을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37, 78-106.
김호정・박천오・유홍림. (2002). 「조직문화의 진단과 분석기법」. 서울: 대영문화사.
조상식 외. (2012). 「교육분야 부패실태 조사」, 대검찰청: 서울.
박종민. (2001). 정책과 제도의 문화적 분석」, 박영사:서울.
박중훈. (1999).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자료집」.
송창근·박흥식. (1994). 부패의미의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의미규정. 「한국 행정학보」, 28(3): 721-735.
손희권. (2007). 학교촌지 수수의 법적 문제 - 관련 법안의 헌법적합성 논의를 중심으로 : 학교 촌지 수수의 법적 문제, 「학교행정학연구」25(1): 165-183.
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2011 반부패교육정책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오석홍 외. (1996). 한국행정사」. 서울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오수길・채종헌. (2003). 한국중앙행정기구의 문화유형 비교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3): 45-68
윤태범. (1993). 관료부패의 구조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보」 27(3): 807-823
은종환 외. (2014).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인식유형 분석: Q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4): 133-160.
이계학. (2006). 한국교육의 부정부패원인과 처방, 「국민윤리연구」. 51: 169-190
이영균. (1996).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 「한국정부학회」. 8(3): 513-535
이정식. (1967), 문화발전과 행정의 역할, 「한국행정학보」. 1, 46-71.

전수일. (1999). 관료부패론」. 선학사.
조석준. (2002), 조직진단과 한국행정」. 대영문화사:서울.
진종순. (2005). 부패, 정치인의 시계(time horizons), 그리고 정부제도.「한국사회와 행정연구」16(2).
최병선. (1997). 부정부패와 정부규제. 「한국행정연구」5(4).
최진욱. (2005). 제도와 부패. 한국행정학보」 39(4): 323-346.
하태권 외. (1999). 공무원 교육훈련 경쟁력 제고방안.「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자료.
한태천. (1998). 관료부패의 원인과 속성. 「한국행정논집」. 10(4): 813-835.
행정자치부. (2005). 「'05년 진단・혁신관리 매뉴얼」.
홍성민. (2000). 문화와 아비투스」. 나남:서울.
홍순표. (1999). 학교촌지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북악논집」16: 61-83
Ajzen, I & M. Fishbein (1980). The Prediction of Behabvior from Attitude and Normative Variabl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466-487
Argandona (2001). Corruption: the corporate perspective. Business Ethics. A European Review, 2001
Bandura, A (1996). Social Learning Theory.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Bourdieu, Pierre. (1990). The logic of Practice, Stanford University. Polity Press.
_____ (1984). Distinction, London: Routledge.
Bourdieu, Pierre & Jean Claude Passeron.(1977).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London: Sage.
CARL J. FRIEDRICH (1966). POLITICAL PATHOLOGY. The Political Quarterly 37(1): 70 - 85
Daniel Kaufmann (1997). Corruption: the facts. Foreign policy,

Washingtonpost. Newsweek Interactive, LLC. 114-131

David H. Bayley (1966). The Effects of Corruption in a Developing Na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December 19: 719-732

Foucault, M. (1972).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New York : Pantheon Books

Graeme, Turner (1990), British Cultural Studies: An introduction, London: Unwin Hyman

Gramsci, A.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London: Lawarence & Wishart

Hass, M. R. (1966). Historical linguistics and the genetic relationship of languages. In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ed. T. A. Sebeok, The Hauge: Mouton

Heidenheimer, Amond J. ED (1989). Political Corruption, New Brunswick: Transaction.

James C. Scott (1969). Corruption, Machine Politics, and Political Chang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4,): 1142-1158

Jeffers, R. J. & Lehiste, I. (1979).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MA: MIT press

Jenkins, Richard (1982). Pierre Bourdieu and Reproduction and Determinism, Sociology, 31

Klimann, R. & Saxton, M (1985), Gaining control of the corporate culture. Sanfranscico: Jossey-Bass

KM Gibbons (1989).Toward an attitudinal definition of corruption. Political Corruption: A Handbook

Kuhn, Thomas.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Laclau, E and Mouffee, C.(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London: Verso

Leff, N. (1964).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bureaucratic corrup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8(3):6-14

Levistrauss, Claude (1955), Tristes tropiques, 박옥줄 역(1998), 한길:서울.

Mcmullan (1961). A THEORY OF CORRUPTION Based on a Consideration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rvices and Governments of British Colonies and ex-Colonies in West Africa. The Sociological Review. 9(2):181 - 201

Nye, Joseph S. (1967).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61(2): 417-427

Pierre, J & B Guy Peters (2000).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NY: St. Martin's Press

Peters, J.G. & Welch, S. (1978). Political Corruption in America: A search for Definitions and a Theory, or.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3) : 974-984.

Quinn, R.E. AND Cameron, K.S. (1983). Organizational life cycles and shifting criteria of effectiveness. Management Science, 29, 33-51

Robbins, R. H. (1968). A Short History of Linguistics. Bloomington: Univ. Indiana Press

Sausure, Ferdinand de. (1960).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Wade Baskin(trans.). London: Peter Owen

Thompson, Denys (ed). (1973). Discrimination and Popular Culture. London: Penguin

Waites, Bernard, Tony Bennett, & Graharm Martin (eds.).(1982). Popular Culture: Past and Present. London: Croom

Abstract

The Study on perception of gray corruption

Jin Ryu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ome are of the opinion that the history of corruption has coexisted with the history of the human race. Indeed, corruption is a social issue that has unceasingly occurred since humans formed collective societies and began to lead communal lives. Because the history of corruption is so long, concepts and people's perception of corruption have been diverse according to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s. Representative studies on corruption understand it through its classification into black corruption, gray corruption, and white corruption. In other words, perception of corruption (that is, whether an act constitutes serious corruption) can differ according to time and space.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insiders, cases of gray corruption are not acts of corruption but are merely customs that have existed from the past. However, they are often perceived as acts of corruption from the perspective of outsiders or when publicized through media coverage. While numerous studies have analyzed the types and causes of corruption through theoretical research and surveys, none has analyzed the types of people's perception of gray corruption. The present study therefore explored people's perception of gray corruption by using the Q methodology. As for the field of research, bribes to school teachers were selected as they are the type of gray corruption most accessible to citizens. This is because while all actors involved are punished through relevant laws in the case of corruption in other areas, only teachers are punished and in the case of bribes to teachers in educational corruption, which occur secretly and frequently due to the misdirected zeal of South Korean parents.

From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five types of attitudes toward gray corruption at school were derived. Respondents of type 1, or "external social critique," distrusted the government, preferred justice, and took a strict attitude toward corruption. Respondents of type 2, or "internal social critique," saw corruption as harming justice in society and the nation and distrusted the government, as did type 1. However, respondents of this type saw inexpensive gifts as unproblematic and the dismissal of teachers as excessive. Respondents of type 3, or "strict ethicism," viewed the building of

students' character as the purpose of education. In addition, they had a tendency to judge corruption more strictly than did other types and answered that they would not commit corruption even if it could lead their children to be favored by teachers. Respondents of type 4, or "strict legalism," thought that corruption must be eradicated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punishments. Though they supported the punishment of dismissal in the case of corruption for teachers' private interest, they tended not to see fundraising for common interest as corruption, unlike type 3. Respondents of type 5, or "conscientious realism," were not macroscopic, as were other types, and judged corruption from a microscopic perspective based on actual situations. They agreed that corruption would exist as long as human selfishness did and exhibited a generous attitude toward corruption involving small amounts. Nevertheless, it was possible to deduce these respondents' conscientiousness from the answer that they would not commit acts of corruption for their children's benefit.

It was possible to derive four implications from the present study. First, perception of corruption can differ for each person. Second, judgment of actual acts of corruption can differ considerably according to one's perception of corruption. In particular, it was possible to derive a tendency not to consider an act as corruption when it was not for private interest, the amount was small, there was no interest involved, and gifts rather than cash were involved. Third, judgment of corruption can differ according to whether one is an insider or an outsider. Fourth,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earnest

consideration that there are diverse opinions regarding the judgment of actual corruption.

keywords : gray corruption, perception of corruption, judgment of corruption, Q methodology, institutional punishment The Study on perception of gray corruption

Student Number : 2012-21986